

재해지역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며

인민이 주인된 나라

축복을 받는 다래자들

금수강산

9

주체110(2021)

루계 제385호 월간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0(2021)년 9월호

표지: 희망과 락관에 넘쳐

수도의 거리와 마을, 공장구내길 그 어디에 가도 장미꽃이 피여나 짙은 향기를 풍기고있다.
울긋불긋 소담하게 피여난 장미꽃은 사랑과 열정, 아름다움으로 불타는 처녀들의 가슴마다에 희망과 락관을 더해주는듯싶다.

본사기자 김성철

축하문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진출한 미더운 청년들에게 · · · · · 2
재해지역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며 · · 6
일 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 · · · · · · · · · · · · 13
인민이 주인된 나라 · · · · · · · · · · · · · 14
지역의 호주 · · · · · · · · · · · · · · · · · 16
성악예술인재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 · 1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새 무장력의 탄생 · · · · · · · · · · · · · 18
대 담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담보 · · 20
하나의 목표, 완강한 실천력으로 · · · · · · 24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 · · · · · · · · · · · 26
축복을 받는 다태자들 · · · · · · · · · · · 28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 · · · · · · · · · · 32
한줌에 담아본 우주 · · · · · · · · · · · ·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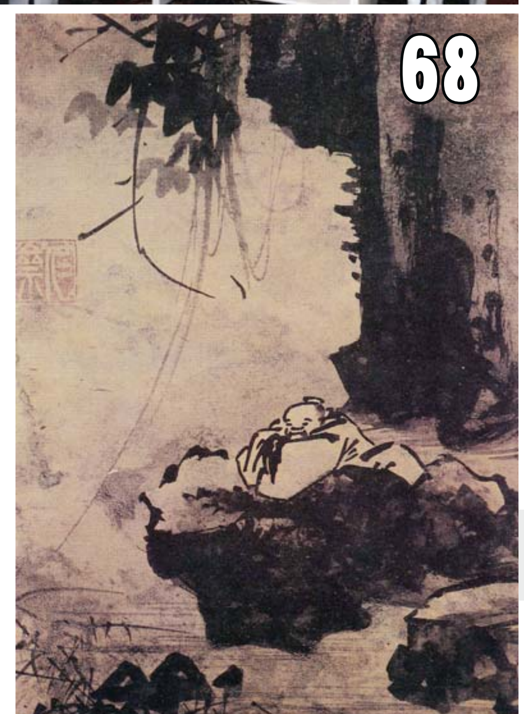














제385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수도의 장미꽃풍경 · · · · · · · · · · · · · 36
태권도사성들 · · · · · · · · · · · · · · · · 40
재능있고 개성있는 작곡가 · · · · · · · · · 44
람홍색공화국기아래 내가 삽니다 · · · · · · 46
안신차 · 49
조국의 품에 안겨
어머니란 부름을 되새길수록 · · · · · · · 50
고향소식
산골군의 오늘 · · · · · · · · · · · · · · · 52
제 눈으로 직접 보았다 · · · · · · · · · · · 56
죄의식이 전혀 없는 확신범 · · · · · · · · · 58
명승-박연폭포 · · · · · · · · · · · · · · · 60
9월의 절기와 민속 · · · · · · · · · · · · · 61
민족의 향기
유구한 력사를 가진 두부앗기풍습 · · · · 62
계속 발굴되는 고구려유적과 유물들 · · · · 64
야 화
《글씨를 돈으로 바꿀수 없다》 · · · · · 66
함경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4) · · · · · 67
문인화가 강희안과 그의 작품들 · · · · · · 68

상 식
사색에 제일 좋은 환경 · · · · · · · · · · · 34
전통적인 훈증료법 · · · · · · · · · · · · · 48
유모아
장난꾸러기의 대답 · · · · · · · · · · · · · 61

편집: 최은혁
ㄱ-2180169

축 하 문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진출한 미더운 청년들에게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을 위한 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훌륭한 남녀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적극 탄원진출하여 전체 인민들의 신심과 투지를 더욱 북돋아주고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조선청년의 혁명성과 전투적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하고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억센 신념을 지니고 난관도 희생도 두려움없이 혁명을 위해 용감히 싸울것을 궐기해나선 동무들의 애국적인 장거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딸들, 제자들의 장한 결심을 지지해주고 기꺼이 떠밀어준 훌륭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이 애국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이끌어주고 밑불이 되여준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피더운 심장과 용솟는 열정으로 조선청년의 억센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청년절을 맞이한 전국의 청년들에게도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서자란 고향과 가슴속에 키워온 희망은 서로 다르지만 당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꿈과 리상을 안고 누구나 선뜻 가기 저어하는 일터와 생소한 고장들에 인생의 닻을 내린 동무들은 사회주의조선의 크나큰 자랑이고 힘이며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애국자들입니다.

동무들의 소행은 사회주의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려는 투철한 신념, 우리 국가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당과 혁명을 위한 길에서 삶의 영예와 보람을 찾는 아름다운 인생관의 발현입니다.

당 제8차대회이후 시대와 조국의 부름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하는 청년들의 탄원열기가 비상히 격양되여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한 청년들의 대오가 급격히 장성한 사실은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세계의 곳곳에서 청년들이 탐욕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수도에로, 도시에로 찾아들 때 수도시민증을 파견장으로 바꾸어 탄전으로, 협동벌로 달려나가고 도시를 떠나 대건설장으로, 섬마을로 주저없이 진출하는 청년들은 오직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자라난 조선청년들뿐입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의 아름답고 훌륭한 정신세계에서 세대가 아무리 바뀌여도 변색을 모르고 맥맥히 살아숨쉬는 애국의 넋과 혁명정신을 읽고있습니다.

정든 집과 불밝은 도시, 사랑하는 부모형제들과 떨어져 남다른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초소들에 자원진출한 동무들의 고결한 정신이야말로 혈육들을 뒤에 두고 설한풍 휘몰아치는 광야에서 풍찬로숙하며 피흘려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의 빛나는 계승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을 개척한 항일선렬들의 붉은 피는 새세대들의 심장에 그대로 흐르고있으며 이것은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이 끗끗이 이어지고있다는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지금 원쑤들은 이 도도한 흐름과 기상에 전률하고있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제재압박과 끈질긴 사상문화적침투책동으로 우리의 청년대오를 변질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는 이 용용한 대하앞에 물거품이 되고말았습니다.

우리의 새세대들을 혁명의 편에서 떼여내여 사회주의보루를 무너뜨리려는것은 백년이 가도 이룰수 없는 헛된 망상입니다.

심장의 피가 펄펄 끓는 동무들의 혁명적진출로 하여 총진군대오의 사기는 날로 충천해지고있으며 온 나라에 필승의 신심과 청춘의 활력이 차넘치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의 고조기는 항상 청년들의 거세찬 탄원열기로부터 시작되였고 이 탄원폭풍은 언제나 온 나라에 혁명열풍, 애국열풍을 불러 격동적인 시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청년들을 부른 당의 호소를 받들어 험준한 산발과 파도세찬 날바다우에 청춘의 배낭을 풀어놓고 고귀한 구슬땀을 바친 청년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열의에 떠받들려 황량하던 페허우에 시대의 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고 이 땅우에는 전설적인 천리마시대, 로동당시대의 대번영기가 펼쳐졌습니다.

나라가 시련을 겪을 때, 우리 조국이 또 한단계의 도약을 요구할 때 당과 혁명이 부르는 제일선에 용약 달려나가 불멸의 위훈으로 강산을 뒤흔들던 기적의 청년신화는 결코 추억속에 있는 과거가 아니며 오늘도 우리 혁명이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전세대들이 창조한 혁명정신, 투쟁기풍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청년대군을 가진 국가는

영원히 로쇠를 모르고 혈기왕성한 젊음으로 비약하며 전진합니다.

94년전 바로 오늘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열혈의 청년혁명가들이 그려보았던 공산주의사회는 먼 래일의것이 아니며 바로 로동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애국청년들의 굴함없는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현실로 펼쳐질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건국이래 가장 준엄한 국면에 처해있으며 전대미문의 난관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돌파해나가고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선들에 집단적으로, 앞을 다투어 탄원진출한것은 몇십, 몇백만t의 강철과 비료가 쏟아져나오고 몇만대의 기계가 생산된것보다 더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보다 기쁜것은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애국으로 뭉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일원답게 어머니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 훌륭한 결심을 하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는것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한것입니다.

애국열에 끓는 청춘의 심장들이 불씨가 되여 수백만 심장에 불을 지피고 이 불길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나약하고 흐리터분한 잔재들을 산산이 태워버리면 조선혁명의 승리의 시간표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됩니다.

당에서는 동무들이 지금의 앙양된 애국열의와 투쟁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전진하는 대오의 맨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수가 되고 선봉투사가 될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동무들이 헤쳐가야 할 길에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을것입니다.

힘들것을 다 각오하고 시작한 길이겠지만 잠시나마 곤난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면 탄원의 그날에 다진 맹세를 되새겨보고 전세대들의 정신세계에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동무들모두가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들에서 투쟁과 위훈의 활무대를 펼치고 청년돌격대, 청년결사대의 위용을 떨치며 이 땅의 외진마을들까지 다 공산주의화해나갈 때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는 더 굳게 다져지게 될것입니다.

나는 애젊은 나이에 당과 국가의 걱정과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 자원진출하여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모든 청년들이 일터의 보배, 위훈의 주인공으로 집단과 동지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영웅청년으로 이름떨치리라고 믿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고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고생을 달게 여기며 청춘시절을 바친 보람찬 자욱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인생의 재부가 되고 후대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으로 될것입니다.

최근 청년동맹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동맹내부사업,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전환을 일으키고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과 정신상태도 눈에 뜨이게 달라지고있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은 이번에 쌓은 경험에 토대하여 긍정이 긍정을 낳는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키며 청년들의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우리의 청년대오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는 견실한 애국자들의 집단으로, 당의 믿음직한 별동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 태여나 자라난 청년이라면 한사람도 남김없이 모두다 공산주의사회까지 데리고 가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어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 지역, 자기 단위에 진출한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주며 당을 받드는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식들을 떠나보낸 가정들을 애국자가정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청년대군은 우리 당에 있어서 어느때나 의지하게 되는 하나의 든든한 지지점이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강력한 력량으로 되고있습니다.

장하고 미더운 청년들의 열렬한 충성심과 전체 인민의 두터운 지지와 신뢰에 떠받들려 우리 당의 위업은 승승장구할것입니다.

간곡한 당부로서 동무들이 생소한 고장, 새 일터에서 앓지 말고 건강하여 부모형제와 스승, 조직과 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새로운 혁신과 끊임없는 위훈창조로 아름다운 삶을 빛내여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모두다 우리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나는 동무들이 어머니당의 참된 아들딸답게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리라 굳게 믿습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 정 은

주체110(2021)년 8월 28일

재해지역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며



함경남도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9(2020)년 10월

최근년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인류에게 파괴적인 재난을 들씌웠다.

많은 나라들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과 큰물로 수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도로들이 침수파괴되였고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물에 잠기였다.

자연재해는 조국에도 파괴적인 대재앙을 몰아왔다.

주체101(2012)년 조양탄광지구와 검덕지구, 주체104(2015)년 라선지역, 주체105(2016)년 함북도 북부지구 등에 큰물이 들이닥쳐 수많은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에도 파괴적인 태풍8호, 9호, 10호가 련이어 나라의 전역을 휩쓸어 많은 지역들이 큰물과 해일, 태풍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전력, 금속, 철도운수, 림업부문에서 큰물과 태풍피해로 언제, 철길, 철다리들이 파괴되고 농업부문과 국토환경보호부문, 도시경영부문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많은 량의 농토와 수많은 다리, 도로, 관개물길, 구조물, 강하천들이 파괴되거나 류실되였다.

서방언론들은 《북조선이 제재, 악성전염병사태, 자연재해라는 3중고로 경제적어려움이 클것》이라고 저저마다 목청을 돋구었었다.

그러나 조국은 역경을 딛고 우뚝 일떠섰다.

제힘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였으며 빠른 기일안에 피해지역마다에 선경마을들을 일떠세웠다.

그것도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원래 살던 집보다 더 좋고 훌륭한 집을 마련해주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을 피워주었다.

자기 모습을 일신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함경북도 김책시, 강원도 김화군, 함경남북도, 라선시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피해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잠에 들 때나, 아침에 깨여날 때나 상처입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시여 사랑을 부어주시던 친근한 어버이의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친부모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였습니다. 그이께 뜨뜻한 새 집에서 지은 따뜻한 밥이라도 한끼 올려 대접하고싶습니다.》

친근한 어버이, 이 부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부름말이다.

조국인민들은 누구나 피해지역의 놀라운 전변에 대하여 말할 때 그 비결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이야기하고있다.

하다면 어이하여 인민들은 그이를 그리도 친근하게, 그처럼 스스럼없이 어버이라 부르며 따르고 받들어오고있는것인가.

사람은 예로부터 역경을 겪어보아야 다 안다고 하였다.

자연재해가 류달리 많이 들이닥쳤던 지난해 8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가 며칠동안 내린 폭우로 큰물피해를 입었을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운전대를 잡고 현지에 나가시였다. 고도로 째인 사업체계를 가진 조국에서 국가령도자가 구태여 현지에 나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상황을 료해대책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말이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렇게 할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 하늘처럼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대하는 인민들이 피해를 당했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는 차가 빠지는 진창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지에서 수재민들을 직접 만나 위로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농장원들이 어떤 집을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농장원들이 독집을 좋아한다고 무랍없이 말씀올리였는데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보라구, 농장원들은 독집을 좋아한다고, 그들이 바라는대로 1동1세대로 지어주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아무리 품이 많이 들더라도 농민들의 의사대로 살림집설계를 해주자고, 설계가 완성된 다음에도 그들의 심사를 꼭 받아서 지어주자고 하시였다.

그리고 피해지역 인민들의 식량과 피해복구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자재를 국무위원장예비량곡과 전략예비물자를 해제하여 보장할데 대하여서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는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가족세대들이 전적으로 맡아하며 피해지역의 군급지도적기관들에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



30여일만에 완공된 라선시피해지역 주체104(2015)년 촬영

주체109(2020)년 8월과 9월에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에 의하여 수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농경지, 도로, 철길, 다리들이 침수, 매몰,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자연의 광란이 휩쓴 땅에 솟아난 보금자리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서 주체109(2020)년 촬영

롯한 사무공간들과 공공건물들, 개인세대들에 분숙시키고 안정시키며 위로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긴급조치들을 즉석에서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이 한창 진행될 때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또 찾아주시고 건설자재소요량이나 부지절약측면을 고려하지 말고 농장원들의 요구대로 살림집건설이 진행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두렁길, 돌서덜길, 언제 무너질지 모를 철길로반들에 발자욱들을 찍으시며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에 가시여 피해상황을 료해하시였고 피해가 심한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도 찾아가시여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전변시킬 웅대한 구상과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만사를 미루시고 피해지역들을 련이어 찾으신 그이께서는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도 현지에서 소집하시였으며 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력량편성문제와 설계, 자재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즉시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한해에도 무려 여러차례에 걸쳐 중요한 당회의를 소집하고 중대조치들을 련속적으로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고상한 정신도덕적미덕을 사회주의국풍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수도에서 지방을 지원하도록 하며 평양시의 핵심당원들로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여 피해복구에 나설것을 호소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수도 평양의 전체 조선로동당원들에게 공개서한도 보내시였다.

그이의 공개서한의 구절구절을 들으며 피해지역 인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은 5년전 라선시큰물피해복구의 그날을 되새겨보았다.

당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제로 제일먼저 토의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군대가 라선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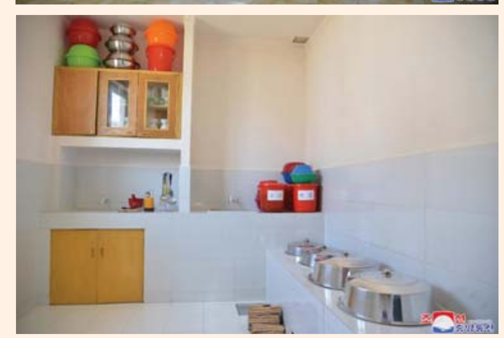


함경남북도, 라선시의 피해지역마다에 선경마을이 일떠섰다.
주체109(2020)년 촬영









해복구를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와닥닥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하늘길, 배길을 달려 나라의 최북단인 라선땅으로 가시여 큰물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며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살림집건설을 끝내도록 피해복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그이의 모습은 그대로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는것을 세계앞에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조국인민들은 그이의 위민헌신의 뜻을 받들어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며 피해지역마다에 자연이 가져온 온갖 재앙은 땅속깊이 영영 묻어버리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선경마을을 일떠세웠다.

예로부터 불난 곳에는 남는것이 있어도 큰물뒤에는 건질것이 없다고 했지만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조국에서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게 되였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이렇게 터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하늘땅 끝까지!》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조선중앙통신







피해지역들에서 새집들이가 있었다. 주체109(2020)년 촬영

위민헌신의 나날에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체102(2013)년 5월 2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 한 육종장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점심시간인지라 한적한 건설장에 조용히 들어서시는 그이를 뵈옵자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여서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한동안 육종장의 기본사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파울염소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일군들을 재촉하시였다.

산골짜기의 제일 막바지에 있는 파울염소우리까지 가자면 이제까지 온 길보다 더 험한 산골길을 가야 하였다. 일군들이 간절히 만류하였으나 그이께서는 결심을 굽히지 않으시고 차에 오르시였다.

길아닌 길을 따라 힘겹게 달리던 승용차는 얼마 못 가서 끝내 진창에 빠지고말았다.

바퀴는 헛돌며 아츠러운 소리를 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누가 어쩔사이도 없이 차문을 여시고 그 험한 진창길에 내려서시더니 흙탕물이 튀여오르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골안의 막바지에 있는 야외염소우리에 이르시였을 때 마침 방목나갔던 파울염소들이 떼를 지어 우리로 들어왔다.

그이께서는 한 새끼염소를 쓸어주시며 이 염소들이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고기를 정상적으로 먹이고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겠는지 모르겠다고 유쾌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때 별안간 새끼염소가 몸을 솟구며 《매-》 하고 울음을 터쳤다.

그이께서는 새끼염소의 등을 두드려주시며 《이놈이 제법 내 마음을 아는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 말씀에 모두가 웃음을 지었다.

진정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기 위해 그 어떤 로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이이시였다.

최우선, 절대시

주체101(2012)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상점을 돌아보시였다.

상점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한 매대에 이르시여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더니 일용잡화매대에 있는 안경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왔는데 다시 가보자고 하시며 되돌아서시는것이였다.

각종 색안경과 도수안경들이 일매지게 꽂혀있는 진렬대에서 안경을 뽑으신 그이께서는 안경진렬대가 안경을 뽑기 불편하게 되여있다고, 안경진렬대는 빙빙 돌아가게 만들어놓아야 손님들이 안경을 고르기 더 편리할것이라고 이르시였다.

이윽하여 몸소 색안경을 끼여보신 그이께서는 상점일군에게 어디서 거울을 볼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가까이에 있던 한 판매원이 거울을 가지러 다른 매대로 달려갔다.

이윽고 거울을 받아드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안경을 파는 매대에는 거울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손님들이 안경을 낀 자기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향수제품을 보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화장품매대에 향수 냄새를 맡아볼수 있게 작은 숟가락같이 생긴 종이를 꼭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향수를 쳐서 냄새를 맡아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기용품매대에 들리시여서는 각양각색의 선풍기들을 보아주시면서 손님들이 상품을 살 때 동작원리를 물어볼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알려줄수 있게 판매원들이 상품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있을데 대해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그이께서는 무엇을 하나 보고 대하시여도 인민들의 립장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였다.

본사기자



인민이 주인된 나라

조국의 9월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가 휘날린다.

공화국창건 73돐을 맞으며 창공높이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우러를수록 조국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인 공화국의 품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오신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광명한 미래에로 억세게 나아가는 강위력한 국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꽃펴나는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다.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정권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있는것은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있기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나가려는것은 인간의 세기적념원이며 이것을 실현시켜주는 나라는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마련이다.

공화국은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있을뿐아니라 그 지위와 역할을 가장 철저히 보장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받아들여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며 광범한 대중을 국가관리와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그들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 정권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있다. 그리고 법제정과 집행이 철두철미 인민을 지키기 위한것으로 일관되고있다.

조국의 그 어디에 가보아도 지방주권기관으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이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도, 시, 군(구역)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여 나라의 정사를 론하고있는 현실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된 사회라는것을 그대로 말해준다.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우선시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평가가 모든 사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기준으로 되고있으며 누구나 사회적으로 존엄과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받으면서 보람있게 살고있다.

조국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참다운 삶을 누려가고있다. 누구나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의해 생활상 필요한 모든것을 보장받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는 조국인민이 가장 우월한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자식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이 나면 치료받을 걱정없이 마음껏 배우고 치료받고있을뿐아니라 나라에서 지어주는 새 집을 무상으로 배정받으며 살고있는것이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공화국의 이런 인민적시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통이 큰 사업이 련이어 펼쳐지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인민적시책은 더욱 철저히 구현되였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은 보다 높이 발현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우고있다.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릉라인민유원지, 옥류아동병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미처 그 이름을 꼽을수 없을 정도의 창조물들이 최근년간에 일떠섬으로써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뿐만아니라 도처에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이 건설되였다.

그리고 후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선진적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밑에 근로자들을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 지식형의 근로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에 있어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복리를 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이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언제나 걸머지고 실행해나가는 최급선무, 가장 영예로운 사업으로 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 라선시 큰물피해때와 그 이후 북부지역에서 처음 보는 대재앙을 당하였을 때도 그러하였지만 공화국에서는 지난해 련이은 자연의 대재앙으로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을 때에도 온 나라가 떨쳐일어나 수재민들모두에게 종전과 대비조차 할수 없는 새 집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이 한날한시에 입사하도록 하였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로 악화되고있는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함께 검덕지구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 모든 현실을 체험하면서 조국인민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지역의 호주

조선서해를 한옆에 끼고 벌들이 무연하게 펼쳐진 평안북도 정주시에 가면 시내중심의 거리는 물론 주변의 농장마을들이 그림처럼 안겨온다.

가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은 문명을 노래하고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힘찬 동음이 울려나오는 정주시의 이 활기에 넘친 모습에는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올해에 들어와 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높이 정하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에 힘을 집중하였다.

그 일환으로 음료공장의 능력확장공사를 통이 크게 벌리였다. 자기 지방의 흔한 원료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음료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려는것이 이곳 일군들의 의도였다.

공사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은 많았다.

하지만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대해야 한다는 일군들의 복무관점은 투철하였다. 이들은 공사장에서 자재와 설비가 부족될 때면 앞채를 메고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길, 밤길을 걸었고 때로는 건설자들과 함께 땀으로 옷을 적시며 로동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이곳 일군들은 누구나 수첩에 《오늘 나는 인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가?》라는 글을 적어놓고 매일 하루사업을 총화짓는다고 한다. 이들은 시안의 주민들을 자기 식구처럼 여기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하여 애쓰는것을 습벽화하고있다.

물론 인민생활을 책임진 정권기관 일군들이 해야 할 사업은 참으로 방대하다.

그러나 이들은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사명을 긍지높이 여기며 자신들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여가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올해중에 완공할것을 계획한 음료공장의 능력확장공사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기간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개선되고 시내중심은 물론 농촌의 많은 지역들에 새 살림집들이 건설되여 주민들에게 배정된것은 인민을 위해 애쓰는 이곳 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에는 치산치수사업에 큰 힘을 넣어 산마다 단나무림, 밤나무림, 수유나무림 등을 새로 더 조성하여 시안의 식료가공기지들에 필요한 원료들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고 달래강을 비롯한 강하천들에 대한 제방공사와 농촌리들에서의 사방야계공사, 공원들의 원림록화와 도로주변의 화단조성 등을 진행하여 시의 환경을 일신시켰다. 축산과 양어, 버섯과 온실남새생산 등의 체계적인 장성, 편의봉사와 급양봉사활동의 질적개선…

실로 이들은 최근년간 지방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이룩하고있다.

지금도 종이공장, 식료공장, 비누공장을 비롯하여 시안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된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이 시안의 상점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는 사실은 인민을 위한 이곳 일군들의 열의를 가늠케 한다.

정주시 달천동 1인민반에서 사는 송천명은 시안의 면모가 나날이 달라지게 된것은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진정 《우리 시민들의 호주》라고 정담아 말하였다.

지역의 호주, 시민들의 호주, 이것은 오늘 조국에서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에 대한 값높은 표창이며 인민들의 믿음이다.

본사기자 홍정혁

성악예술인재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서거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조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업을 충직하게 보좌해드리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고있다.

그가운데는 나라의 성악예술인재양성에 바쳐진 녀사의 노력도 깃들어있다.

해방후 나라에는 성악가력량이 매우 부족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예술단체들을 조직할데 대하여》, 《북조선예술총련맹의 임무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성악가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녀사께서는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 성악가대렬을 확대하며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예술부문과 방송부문에서 신인가수들을 찾아 무대와 방송에 출연시키는 사업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평양시에서만 아니라 군중예술이 꽃피는 공장과 농촌, 탄광과 건설장 등 전국각지를 편답하면서 신인가수를 찾도록 방도도 밝혀주시였다.

뿐만아니라 녀사께서는 성악가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업에도 주의를 돌리시였다.

해방후 적지 않은 성악가들은 제가끔 간판을 단 예술단체들에 망라되여 새 민주조선의 기풍과는 어울리지 않게 인기본위의 저속하고 퇴폐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활동을 벌림으로써 인민들의 사상문화정서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녀사께서는 극장들에 나가 예술인들의 공연들도 자주 보아주시면서 그들이 예술활동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높은 민족자주의식을 지니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36(1947)년 3월 당시 국립극장에서 진행된 공연을 보아주신 녀사께서는 공연종목들에 민주주의적인 문예사상과는 거리가 먼 작품들이 적지 않다는것을 헤아리시고 극장일군들과 문화예술부문 일군들에게 일제의 낡은 사상잔재의 위험성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의것을 그대로 본따고 받아들여서는 건국사업을 바로해나갈수 없으며 살아나갈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루빨리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부터 개변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의 주요한 수단인 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현상을 없애고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어 공연할데 대해서도 이르시였다.

그후에도 김정숙녀사께서는 성악가들속에서 나타나는 낡은 사상잔재의 자그마한 현상과 표현도 스쳐지나지 않으시였으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범벅예술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우리의 문학예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렇듯 녀사께서는 나라의 음악예술인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참으로 녀사께서 새 조국건설시기 우리 나라 성악예술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음악예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다.

주체음악연구소 서경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새 무장력의 탄생

(전호에서 계속)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사령을 설복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고 당돌하게 들이댔다.

《사령님께서는 공산당이 나쁘다는것을 책을 보고 아십니까? 말을 듣고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때문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고 하십니까?》

《책은 무슨 책. 말을 듣구 알지. 입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구 해. 그래서 나두 나쁜줄로 알구있는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아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됐다!》하고 마음을 놓았다. 체험에 기초한 견해가 아니고 소문을 듣고 생긴 오해이니 얼마든지 바로잡아줄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였던것이다.

《사령님이 자기 주견도 없이 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큰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던 진한장과 호진민도 공산주의자들이고 참모장까지 우리를 지지해주고보니 우사령은 결국 우리들에게 포위된 셈이였다.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나는 설복을 계속했다.

《사령님, 아까운 청년들을 자꾸 죽여선 뭘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총은 당장 줄수 없겠지만 창이나 하나씩 주어서 한번 돌격대로 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놈들하구 잘 싸우는가 어쩌는가를 시험해보잔 말입니다. 잘 싸우면 그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죽여버릴거야 없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내 말을 한참동안 듣고있더니 《음, 그건 그래. 그럼 선전대장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게.》라고 하였다.

나는 붙잡혀온 청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쪽지 한장을 써서 그들속에 은밀히 돌리였다. 당신들은 증거가 없는 한 공산당원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의 몸을 수색할 때 나온 《반일병사들에게 고함》이라는 삐라는 어데서 주었다고 대답하라는 내용의 쪽지였다. 그 사람들은 이 쪽지가 어떻게 되여 자기들의 손에까지 들어왔는지 알수 없었다.

내가 나타나자 잡혀온 청년들은 모두 분노에 찬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를 우사령한테 와서 그의 하수인노릇이나 하는 나부랭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적의에 찬 시선을 온몸에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동무들가운데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물음 한마디에 얼음장같은 긴장감은 깨지고 장내에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퍼져갔다.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내가 바로 김성주올시다. 나는 지금 여기 우사령부대에서 선전대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우사령은 방금 나에게 당신들이 구국군에 합세하여 싸울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걸 알아보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온 장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웨치였다.

나는 우사령을 찾아가서 청년들의 동향을 그대로 전달한 다음 우리가 그들을 흡수해서 일본군대와 싸움을 시켜보는것이 어떤가고 제기하였다.

우사령이 그 제의에 선뜻 동의해나섬으로써 청년들의 생사와 운명문제는 우리의 요구대로 결정되였다.

우리앞에는 반일련합전선을 실현할수 있는 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이렇게 유격대를 합법화할수 있는 문어귀에 거의 도달했을 때 우사령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있는 조선인고문이 말썽을 부리였다. 그는 김좌진파에 속한 오랜 민족주의자였는데 남호두에 와서 농사를 하다가 9.18사변이 일어나자 구국군에 합류한 사람이였다. 그는 지식이 있고 두뇌가 명석하였기때문에 우사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있었다.

이 사람이 우사령을 사촉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박해하게 하는 모사였다. 그는 70~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부대에 받아들이는것은 경거망동이라고 하면서 그들중에는 친일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떠들었다. 이 사람을 눌러앉히지 않고서는 우리의 활동에 또다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수 있었다.

어느날 나는 우사령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거 부대에 조선사람이 한명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아니, 아직도 못 만나봤는가고 하면서 부하들을 시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만나보니 키가 무척 크고 체격이 건장한 사나이였다.

나는 《인사합시다. 선생님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 많은 편달을 주기 바랍니다.》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였다.

그도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는 사령부에 중국말을 잘하는 조선청년이 새로 들어와 선전대장이 되여 우사령을 보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 소식을 듣고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었노라고 하였다.

그가 감히 조선사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민족에 대해 운운하기때문에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이댔다.

《그러면 반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야지 어째서 자꾸 죽입니까? 사상이 다르다고 죽이면 됩니까? 조선사람이 제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는것만 해도 분한 일인데 여기 만주에 쫓겨와서 구국군들한테까지 잡혀죽으니 이 이상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했건 민족주의를 했건 주의를 가리지 말고 단결시켜서 일제와 싸우게 해야지 자꾸 배척하고 잡아제껴서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선전대장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여 두번째 장벽이 허물어졌다.

우사령은 우리의 담화가 호의적인 분위기속에서 결속되는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우사령에게 사령께서 나를 믿으신다면 선전대장자리는 호진민 같은 사람들에게 겸직으로 주고 나에게는 차라리 조선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투쟁할 대장책임을 하나 줄수 없느냐고 제기하였다.

류본초선생도 지당한 말이라고 하면서 나를 지지해주었다.

우사령은 조선사람으로 부대를 따로 묶는다면 총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령님보고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적의 총을 빼앗아서 부대를 무장시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우사령은 그 대답을 듣고나서 몹시 만족해하였다.

《그럼 부대를 뭇게. 그런데 자네네한테 무기를 주었다가 후에 그 총부리를 돌려대면 어쩐다?》

《그건 념려마십시오. 그런 배신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설사 총부리를 돌린다 해도 사령님네 부대와 같이 큰 부대가 우리 같은 햇내기들을 못 당해내겠습니까?》

우사령은 손을 내흔들며 오히려 제편에서 대장이 롱담을 진담으로 들은게 아닌가고 하면서 너털웃음을 지었다.

나는 처음부터 구국군에서 떨어져나오겠다고 하면 우사령의 노여움을 살것 같아서 그에게 사령의 명의로 부대의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옆에 있던 류본초선생이 《그럼 별동대라고 하지. 조선인별동대라고 하는것이 좋겠소.》하고 말하였다.

류본초선생의 제안에 우사령도 찬성하고 나도 찬성하였다.

비밀유격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별동대의 탄생과 함께 성과적으로 종결되였다. 우리는 이 별동대안에 안도에 있는 비밀유격대성원들과 우사령부대에 억류되였던 70~80명을 다 포함시켜 유격대를 합법화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담보

- 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박철준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안아오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결과 올해 인민경제계획에 반영된 상반년경제계획이 적극 추진되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눈에 띄우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기자 김지성은 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박철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이 가지는 의의는 참으로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5개년계획의 첫해부터 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결과를 기어이 이루어낼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였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올해는 5개년계획수행의 관건적인 해라고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매일 소개되고있습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국장: 그렇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받아안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서 뚜렷한 전진을 안아오기 위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수행기간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리였습니다.

특히 경제건설의 주요명맥을 지켜선 금속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전국의 앞장에서 내달리였습니다.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낸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근로자들은 전기로와 산소분리기, 가열로들을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가동과 기술개건에 힘을 넣는 한편 원료, 자재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선철, 강철, 압연강재생산을 일정계획대로 내밀었습니다. 이외에도 상반년 삼화철생산계획을 완수한 보산제철소를 비롯하여 청진제강소, 부령합금철공장 등 금속공업부문 여러 단위들의 근로자들은 생산현장들에서 자력갱생의 값진 재부들을 창조하며 지표별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였습니다.



증산의 동음높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대담하게 창조하고 혁신하면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온 금속공업부문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삼화철과 압연강재, 규소철, 자철정광 등의 생산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룩되게 되였습니다.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공업인 화학공업부문의 근로자들도 무한한 헌신성과 창조본때로 질소비료와 비날론, 가성소다, 염화비닐, 소금생산 등의 지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비료생산계획을 이미 완수하였으며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근로자들도 집단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였습니다.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부문의 근로자들도 증산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석탄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공업부문과 기계공업부문, 채취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

러 부문에서도 일어나 올해 경제계획수행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습니다.

기자: 정말이지 어느 단위라 할것없이 근로자들의 열의는 비상히 앙양되여있으며 집단의 단합된 힘은 더 높은 생산성과를 안아오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해 인민경제계획수행으로 끓고있는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취재하면서 목격하게 되였습니다.

국장: 하나의 사상과 지향으로 굳게 뭉친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것은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낳는 비약의 원동력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비상히 앙양된 근로자들은 1950년대 로동계급이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생산현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여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전국의 근로자들은 일터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부단히 창조하였습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만 보더라도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처럼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면서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사회주의경쟁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고경찬영웅소대는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이것은 생산성과에로 이어져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3월말까지 초과완수하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근로자들도 어제날의 천리마기수들처럼 남보다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안았으며 기능공들이 신입공들을 도와주는 집단주의미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상반년기간에만도 많은 년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며 난관을 함께 타개해나가는 훌륭한 미덕과 미풍은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근로자들속에서 발휘되고있으며 집단주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국풍으로,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보다 승화되였습니다.

기자: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에게는 커다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와 악성비루스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위기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저애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근로자들은 기술혁신, 과학기술력제고를 생산장성의 가장 큰 예비, 최선의 방략으로 틀어쥐고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상반년계획수행에 이어 하반년계획을 믿음직하게 수행해나가고있습니다.

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의 발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비료생산을 늘이고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성과가 이를 립증하고있습니다. 생산장성의 근본담보를 과학기술에서 찾은 기업소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대중의 창발성을 적극 동원하면서 설비들의 기술개건과 국내의 원료, 자재에 의거하는 생산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습니다.

기업소는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수행과정에 쌓은 경험에 토대하여 각종 촉매들의 연구개발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기업소의 기술자, 연구사들속에서 촉매개발과 관련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제기되고 집체적토의를 거쳐 과학기술적으로 보다 완성되여 비료의 생산성을 더 높일수 있는 촉매들이 새롭게 연구개발되고있습니다. 이외에도 생산에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여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

현재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이자 곧 생산장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누구나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이로하여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각종 촉매들의 개발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습니다.

현실은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간다면 아무리 엄혹한 환경이 지속되여도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기자: 이야기를 듣고보니 당의 경제정책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생산열의와 창조적투쟁에 의해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이 완수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 *







전력, 건재, 경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하나의 목표, 완강한 실천력으로

굴지의 기계제작기지로 불리우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해방직후 빈터에서 자체의 힘으로 3.75㎾전동기와 10kVA변압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대안의 로동계급은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70여년세월 수많은 대형, 중형, 소형전기설비들을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최대로 발휘할것을 호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설계와 가공을 혁신하는데 기술발전의 중심고리를 두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우선 발전설비를 현대적으로 설계제작하기 위한 최신설계기술자료기지를 구축하고 설계에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생산현장들에서는 CNC화된 가공설비들의 조종프로그람을 갱신하여 그 성능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 새로운 설비들을 설계제작하여 발전기부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기업소의 그 어디서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여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발전설비1가공직장에서는 새로운 지구장비들의 도입으로 두달이 걸려야 한다던 어느 한 발전소설비가공을 한달동안에 결속하였다. 그리고 절삭공구를 개조하여 가공과정에 나오는 절삭밥량을 극력 줄이는 한편 그 페설물을 재자원화하는 공정도 꾸려놓고 각종 철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소재부문, 제관부문, 조립부문을 비롯하여 기업소의 그 어느 현장에 가보아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내걸고 헌신의 땀을 흘리는 이곳 로동계급의 모습을 볼수 있다.

비록 가는 앞길에 애로와 난관이 막아선대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기어이 수행하려는 이들의 완강한 실천력에 의해 이곳에서 생산된 많은 설비들이 곳곳에 일떠선 수력발전소들에서 용을 쓰고있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평양시 만경대구역 당상동에는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이 있다.

주체58(1969)년 8월 평양전기의료기구공장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공장은 지난 기간 렌트겐진단장치를 비롯하여 수많은 각종 의료기구들을 제작하여 보건기관들에 보내주었다.

공장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를 추진하여 올해 1월에 개건되였다.

여러 생산현장과 통합지령실, 기술발전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갖춘 공장에서는 수자식 렌트겐진단장치를 비롯한 의료기구와 함께 새형의 설비들을 계렬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고있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전기수술칼, 호흡량측정장치, 심전계, 전자체온계를 비롯한 의료설비들의 원가를 낮추면서도 질을 보장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고있다.

생산자들은 기계, 전기, 전자, 프로그람, 생체공학의 집합체와도 같은 의료기구제작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보장하고있다.





특히 공장에서는 생산되는 의료설비들이 먼거리의료봉사체계에서도 아무런 지장없이 가동될수 있도록 설계와 프로그람을 작성하는데 모를 박고있다. 모든 의료설비들의 개발은 공장의 기술력량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생체공학연구소에서 맡아하고있다. 이미전에 이들은 자기공명화상진단장치의 조종프로그람도 새롭게 개발하였다.

뿐만아니라 사장되여있거나 수명이 다된 의료기구들의 원성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장의 마크를 단 전기 및 전자의료기구들은 전국의 보건부문에 도입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우리는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하여 자체의 기술력량을 발전시키고 수입에 의존하던 의료설비들을 국산화해나갈 결심입니다.》라고 공장지배인 탁병철은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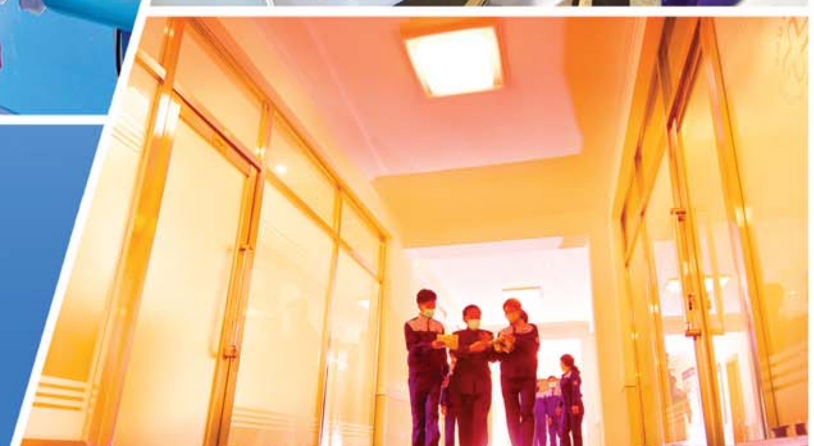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축복을 받는 다태자들



세쌍둥이를 위하여 산간벽지에까지 비행기가 동원되였다.

조국에는 출생 그자체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다태자들인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이다.

세쌍둥이, 네쌍둥이가 태여나면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면서 TV, 신문, 방송으로 어린이들과 그들을 낳은 부모를 소개하고 온 나라가 축복을 보내는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세쌍둥이, 네쌍둥이양육대책

조국에는 세쌍둥이, 네쌍둥이양육대책이 철저히 세워져있다.

다태자임신부에 대한 관심은 그가 거주하고있는 리, 동진료소에서부터 시작된다. 다태자임신부에 대한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진행되여 다태자라고 확증되면 평양산원으로 이송되며 순산할수 있는 조건속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

1명의 의사와 3~4명의 간호원들의 관심속에 아이들은 보육기에서 몸무게가 4kg이 될 때까지 자라고는 자기가 거주한 지역의 육아원으로 가게 된다.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퇴원하는 네쌍둥이

주체75(1986)년 촬영



세쌍둥이, 네쌍둥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받는 금반지와 은장도

산원문을 나서면서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은 한생 가보처럼 전해갈 은장도와 금반지를 받는다. 남자애인 경우에는 은장도, 녀자애인 경우에는 금반지가 차례진다.

은장도와 금반지에는 홍보석을 박은 목란꽃을 부각하고 칼과 반지의 뒤면에 생년월일이 새겨져있는데 첫째의것에는 난 해가, 둘째의것에는 난 월, 셋째의것에는 난 날이 새겨져있다. 세쌍둥이, 네쌍둥이의 아버지, 어머니도 은장도와 금반지를 받는다. 뿐만아니라 다태자들이 태여나서 입을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커서 어른이 되여 시집, 장가갈 때 입을 옷감들도 받아안게 된다.

육아원에서 이들은 1명의 담당의사와 3~4명의 보육원들의 관심속에 첫돌상도 받아안으며 국가적인 배려속에서 자란다.

보육원들과 담당의사의 건강관리부에는 몰라보게 커가는 이들의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과 그들의 취미와 성격들도 적혀있다.

4살이 되여 집으로 올 때면 부모들은 실하게 자란 아이들의 모습에서 국가의 고마운 혜택을 페부로 느끼고있다.

집으로 온 세쌍둥이, 네쌍둥이에 대한 의료봉사는 국가적인 검진 및 건강관리체계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은 양육보조금을 받으며 국가의 부담으로 크며 그후에도 17살이 될 때까지 사회의 관심속에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거주지역 일군들과 사람들의 축복속에 자라난다.

모란봉구역 비파2동 57인민반에 사는 세쌍둥이인 홍광림(남), 홍명림(녀), 홍성림(녀)의 어머니인 신경화(37살)녀성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민반사람들과 구역일군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정말이지 다태자들은 나라와 사회에서 키워줍니다.》라고 감동을 금치 못한다.

세쌍둥이, 네쌍둥이의 어제와 오늘

예로부터 다태자가 출생하면 그 산모에게는 《겨 석섬에 시래기 석섬》이라는 눈물겨운 운



주체110(2021)년 5월 평양산원에서 513번째 세쌍둥이가 퇴원하였다.



정기검진을 받고있는 세쌍둥이들



명이 차례졌다. 력사기록에조차 세쌍둥이들의 출생은 《정상을 벗어난 해괴한 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해방직후부터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의 양육대책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7월 강동군 승호면(당시)에서 세쌍둥이가 태여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세쌍둥이가 태여났단 말이지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보시던 문건들을 다 밀어놓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삼태자가 출생하였다고 하는데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삼태자가 출생하면 아이들과 산모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특별히 돌봐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국가적인 관심속에 나라의 여러곳에서 세쌍둥이들이 태여났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에게 돌려지는 혜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민족의 최대국상을 당하였던 주체83(1994)년 7월 강원도 김화군에서 세쌍둥이가 출생하였을 때에도 나라에서는 비구름이 떠도는 창공으로 평양산원의 유능한 의료일군들과 의료설비들을 실은 직승기를 띄워보내주었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속에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다태자들은 많이도 출생하여 지난 7월초까지 그 수는 세쌍둥이 518쌍, 네쌍둥이 7쌍에 달하였다.

하기에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나라의 혜택에 보답하라는 의미로 달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있다.

오늘 과학자, 예술인, 체육인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에서 활약하고있는 세쌍둥이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나라의 인재가 될 포부만이 차넘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조선중앙통신





주체48(1959)년 첫돌을 맞은 대동땅의 세쌍둥이가 오늘은 손자, 손녀를 거느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였다. 주체108(2019)년 촬영



국가의 관심속에 부러운것없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는 세쌍둥이들
주체108(2019)년 촬영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지난 6월 1일 국제아동절을 즐겁게 맞이한 조국의 어린이들속에는 장애어린이들도 있었다.

이날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에서 회복치료를 받고있는 어린이들은 대동강구역 동문2유치원의 어린이들과 어울려 예술공연과 체육경기를 진행하였다.

신체상장애가 있는 자기 자식을 사람들앞에 선뜻 내세우기 꺼려하던 장애어린이들의 부모들도 여기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그늘없이 밝게 웃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자기 자식들에게 바쳐지는 나라의 혜택이 너무도 고마워서였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은 대동강구역 동문2동에 위치하고있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은 주체101(2012)년 3월에 창립되여 그 다음해 3월 29일에 첫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맞으며 개학식을 의의있게 진행하고있다. 학령전 장애어린이들을 등록하고 회복 및 보육교양사업을 진행하여 그들이 정상어린이들처럼 학교교육을 받을수 있게 준비시키고있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은 자페증, 뇌성마비, 청력장애, 다운증후군과 같이 여러가지 질병을 앓고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종합적이며 다기능적인 회복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청력장애, 뇌성마비 등 여러 선천성질병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속에서 살던 장애어린이들은 보육교양원들과 회복의사들의 보살핌속에 신체적장애를 하나하나 회복하고있다.

보육교양원들은 지능놀이감을 리용하여 장애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는 한편 교육내용을 쉽게 받아물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있다.

이곳의 회복의사들은 장애류형별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극적이면서도 꾸준한 치료를 진행하고있다.

장애어린이들은 가정환경처럼 꾸려진 회복원에서 색진흙맞추기, 그림맞추기 등 재미나는 놀이들을 진행하는가 하면 기재를 리용하여 혼자서 옷도 입고 단추도 채우며 생활동작들을 익숙하고있다.









회복치료를 받고있는
장애어린이들



놀이감을 리용하여 지능계발훈련을 하고있다.

회복놀이실은 장애어린이들이 제일 즐겨찾는 곳이다. 이들은 공부가 끝나면 이곳에 와서 미끄럼대도 타고 그네타기도 한다.

회복원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르는 영양식품공급도 짜고들고있다. 나라에서는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혜택을 꼭같이 이곳 회복원에도 돌려주고있다.

남지향어린이의 할머니는 《지금 장기출장을 가있는 애엄마에게 제법 륜돌리기를 하는 지향이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냈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딸자식때문에 늘 걱정을 안고있던 우리 며느리가 이제는 마음을 놓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곳에서 장애를 회복한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있다.

원장 송향춘은 이렇게 말하였다.

《신체장애자식을 차별하지 않는 부모처럼 조국에서는 장애어린이들이라 할지라도 돈 한푼 받지 않고 회복시켜주기 위해 변심없는 사랑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어린이들이 나라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를수 있겠지만 장애를 회복한 래일에는 다 알게 될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상 식

사색에 제일 좋은 환경

- 온도

대뇌의 사색에 제일 좋은 온도는 20℃안팎이다. 이때에는 대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사색하는 능력이 제일 강해진다.

10℃보다 낮은 온도에서 대뇌는 명석해진다고 하지만 문제해결능력이 낮아진다고 한다. 한편 35℃를 초과하면 대뇌의 열량소모량이 많아져 대뇌가 피곤해지며 사람은 쉽게 성을 내거나 초조해한다.

- 공기

대뇌의 활동은 영양소와 공기를 요구한다. 산소가 결핍되면 대뇌의 열량대사가 저하되여 사유기능이 낮아진다.

- 해빛

정상적인 해빛을 받으면 사람의 시력, 정서, 사유효과가 좋아지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수 있다.

그러나 너무 센 해빛을 받으면 뇌세포가 자극을 받아 인차 피로를 느끼게 되며 사유기능이 현저히 낮아진다.

- 색갈

대뇌가 피로할 때 푸른 들판, 바다 또는 하늘을 보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이와 반대로 짙은 빨간색 또는 짙은 노란색을 보게 되면 정신이 흐려지고 더 피로해진다.

- 노래

대뇌가 피로할 때 유쾌하고 우아한 노래를 들으면 피로가 인차 풀리고 사유기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60dB을 초과하는 노래소리는 사색에 불리하다.

* * *





한줌에 담아본 우주

주체106(2017)년 12월 이딸리아에 있는 국제리론물리쎈터에서는 28살 난 조선의 안억성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당시 쎈터에서 연구사업을 하던 그의 학위론문은 《홀로그라피적재규격화의 여러가지 측면에 대한 연구》였다.

소립자물리학에서 새로운 견해를 밝힌 이 론문은 발표된 후 쎈터에서 사업하던 수십개 나라의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론문은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잡지인 《고에네르기물리학》(도이칠란드 스프링게르출판사에서 발행)에 실리였다.

안억성, 그에 대한 동료들의 호기심은 조선이라는 국호와 더불어 대뜸 커졌다. 한것은 주체106(2017)년에 조선에서 자체의 힘으로 우주분야에서의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여 세계의 이목을 끌었기때문이였다. 바로 그 조선의 젊은 연구생이 국제학계의 초점을 모으고있던 첨단분야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이다.

억성은 어릴 때부터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몇개나 있을가, 은하수는 어떻게 생겨날가 하고 자문하며 아버지가 은하계를 형상하여 만들어준 한줌만 한 모형을 보물처럼 여기며 환상의 나래를 폈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졸업한 그는 우주세계를 정복할 높은 리상을 가지고 이곳 대학의 고에네르기연구소에 들어섰다. 하지만 리상과 실천은 지구와 화성사이거리만큼이나 멀었다. 눈으로 다 볼수 없는 아득한 우주세계에서 적실한 연구종자를 찾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것부터가 조련치 않았다. 때로는 자기의 포부가 허황하게 여겨지기까지 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릴적에 아버지가 만들어준 모형을 쥐여보며 마음을 다잡군 하였다. 그 모형에서 그는 앞으로 커서 나라를 위한 훌륭한 과학자가 되여야 한다고 당부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려왔고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도록 언제나 밑거름이 되여준 중학시절, 대학시절 스승들의 모습이 되새겨졌다.

그는 사색과 탐구, 비상한 정열을 발휘하여 검은 구멍에 관한 리론을 비롯한 가치있는 론문들을 거듭 내놓았다.

최근년간에도 대학연구소의 중추가 되여 나라의 첨단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거두었다. 그의 일부 론문들이 유럽의 국제학술잡지들에 여러차례 게재되였다.

그는 자기의 성과를 두고 비결을 묻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군 한다.

《애국이라는 든든한 마음의 지지점이 있고 조국이 안겨준 과학의 지레대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지구도 들어올릴수 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수도의 장미꽃 풍경



평양의 거리와 마을들에 꽃송이가 크면서도 붉은색, 노란색, 흰색 등 갖가지 색갈의 아름다운 수십종의 장미들이 화단과 화대들에 활짝 피여나 수도의 면모가 보다 이채롭게 장식되였다.

만수대분수화초공원과 보통강유원지 등 공원과 유원지들은 물론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광복거리의 록지와 화단들에서 짙은 향기를 풍기며 소담하게 피여난 장미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있다.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장미꽃은 누구나 좋아하는 꽃들중의 하나로 손꼽히고있다. 세계적으로도 장미꽃은 사랑과 열정,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상징하는것으로 하여 꽃중의 《황후》로 널리 알려져있다.

수도의 거리들에 피여난 장미품종들은 평양화초연구소 연구사들이 조국의 기후풍토에 순화시킨것으로서 《장미1》호, 《붉은장미2》호, 《화단장미2》호 등으로 불리우고있다.

평양화초연구소에서는 지난 몇해동안에 평양시만이 아닌 전국의 수백개 단위들에 많은 장미를 보내주어 사람들의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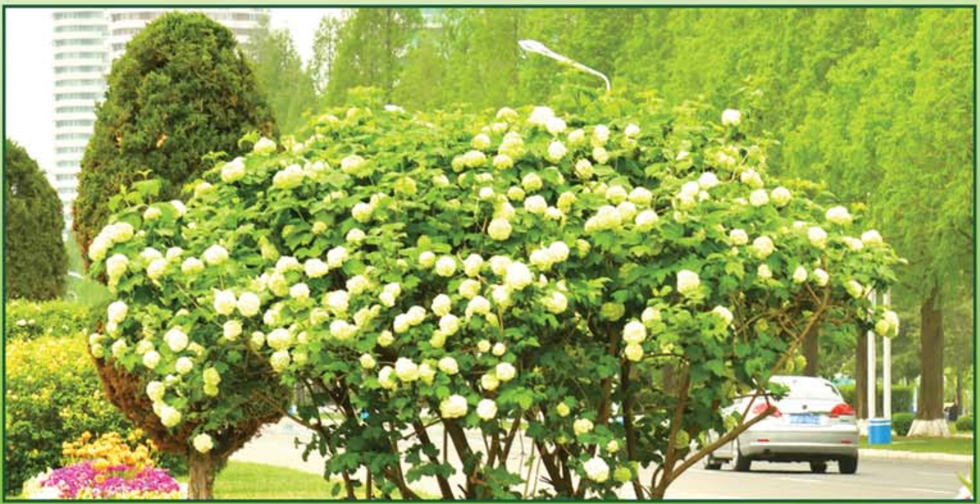
조국인민은 거리와 일터, 공원과 유원지 등에 꽃을 심고 가꾸면서 생활을 보다 문화정서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곳곳에 피여난 장미꽃들은 수도의 풍치를 한껏 더해주고있다.











태권도 사성들

ITF



태권도기술협의를 하고있는 사성들 주체107(2018)년 촬영

국제태권도련맹[주체55(1966)년 3월 22일 결성]과 더불어 지난 55년간 조선민족의 정통무도 태권도는 세계의 120여개의 나라와 지역에 널리 파급되였으며 애호가들은 수천만명을 헤아린다.

태권도가 세계적범위에서 빠른 속도로 파급된데는 조선태권도위원회의 사성(9단)들의 실력과 역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들은 지난 1980년대초부터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나가 태권도를 보급한 조선의 첫 사범들이다.

20대 초엽에 모두가 국제사범의 자격을 소유한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적극적인 사범활동을 벌려왔다.

이들이 받은 사성의 자격들은 그대로 지난 30여년간 국제태권도련맹의 발전에 쌓은 공헌과 소유하고있는 실력과 능력에 대한 표창이다.

조선의 첫 사성인 김응철은 벌가리아태권도협회의 조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나라 인민들속에 《벌가리아태권도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고있다.

주체74(1985)년부터 벌가리아에서 사범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 나라의 어느 한 체육대학의 초청에 의해 태권도교원으로 사업하면서 높은 강의술과 실력으로 많은 수련생들을 키워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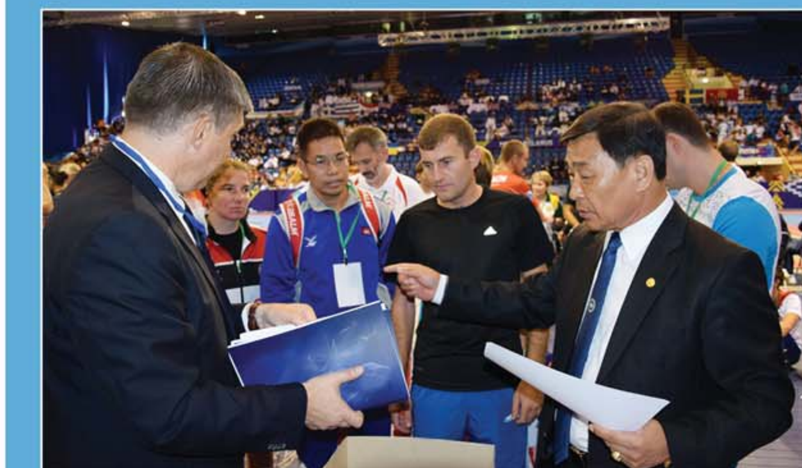
이 나날에 주체88(1999)년 벌가리아태권도협회가 조직되였으며 그후 그는 27개 도시들에 태권도도장을 꾸려놓고 20여년간 수천명의 유단자들을 키워 이 나라의 태권도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는 벌가리아가 4차에 걸쳐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주최하는데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국제태권도련맹 부총재직에 이어 현재 련맹집행위원회 위원, 경기위원회 위원장사업을 맡고있는 그는 태권도세



태권도교련을 주고있는 김응철(벌가리아에서) 주체74(1985)년 촬영



제13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조직사업을 하고있는 김응철 주체107(2018)년 촬영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와 태권도선전물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있는 리명철(왼쪽에서 세번째) 주체87(1998)년 촬영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생일 100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리명철 주체107(2018)년 촬영

계선수권대회조직과 국제사범양성, 강습 등 련맹사업에서 권위있는 조직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성 리명철도 지난 20여년간 모잠비끄와 뽈스까, 중국 등지에서 사범활동을 하면서 태권도협회를 조직하고 많은 유단자들을 키워낸 관록있는 국제사범이다.

1980년대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저저마다 정통성을 주장하는 각이한 무도류파들사이의 치렬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그는 맹호같은 기질과 높은 태권도실력으로 무도류파들사이의 치렬한 기술경쟁, 실력경쟁에 주저없이 뛰여들어 태권도의 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수십차례의 대결에서 강한 손, 발위력으로 맞다드는 상대들을 단매에 제압하며 뛰여난 격파술을 보여주는 그의 시범동작들은 무도인들로 하여금 태권도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이 나날 그는 태권도애호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해당 나라와 지역들에서 태권도협회를 조직하였으며 수많은 유단자들을 키워냈다.

이밖에도 체스꼬태권도협회 조직자의 한사람이며 현재 국제태권도련맹 기술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황호영사성, 아시아의 태권도강림들중의 하나로 알려진 까자흐스딴의 태권도협회 조직자이며 지난 시기 아시아태권도련맹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시아태권도인들속에 널리 알려진 배호명사성, 뽈스까와 리뜨바 등지에서 수련활동을 하면서 《격파왕》으로 유럽땅에 알려진 전대영사성, 네팔팀을 남아시아태권도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올려세운것을 비롯하여 에스빠냐, 오스트리아, 중국 등지에서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한 조철호사성 등 10여명의 사성들은 국제태권도계에 뚜렷한 자욱을 남겼다.

첫 사범활동을 벌린 그때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들은 오늘도 세계태권도인들의 기억속에 협회의 조직자로, 관록있는 사범으로 새겨져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사성들의 지난 시기 사범활동은 젊은 국제사범들에게 있어서 본보기로 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세계 여러 나라들에 태권도를 보급하고있는 태권도사성들













태권도는 세계적범위에서 광범히 보급되고 있다.

재능있고 개성있는 작곡가



새 노래를 작곡하고있는 박한규
주체54(1965)년 촬영

조국의 현대음악사에 이름을 남긴 작곡가들가운데는 전 조선인민군 문예창작실 실장 공훈예술가 박한규(1919. 3. 2-1992. 2. 14.)도 있다.

그는 작곡가로 활동하는 기간 《바다의 노래》, 《구국투쟁가》, 《아무도 몰라》를 비롯한 시대의 명곡들을 작곡하였다.

특히 그가 작곡한 《오 눈보라 눈보라》는 어느 한 나라에서 출판된 세계명곡집에 《아리랑》과 함께 올랐다고 한다.

그는 뛰여난 재능과 창작적개성을 가진 작곡가였다.

전 국립교향악단 단장이였던 김연규는 《그는 참으로 개성이 뚜렷한 작곡가였다. 우리 나라 작곡가들중에서 개성이 뚜렷한 작곡가 하면 음악가들은 선참으로 박한규를 꼽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선률의 조약과 반복성은 창작기법상 그의 개성적측면이였다고 한다. 작품에서 그의 특징은 노래의 시작음을 높은 위치에서 떼며 선률을 반복하고있는것이다.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해안포병의 노래》, 《아무도 몰라》, 《손풍금수 왔네》가 바로 그러하다.

한때 음악계에 《박한규식작곡법》이라는 말이 돌아갈 정도로 그는 그 어느 작곡가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창작적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음악교육을 별로 받은적이 없었다.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던 시기에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여난 그는 9달만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 중국으로 갔다. 음악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 일본에서 고학으로 음악공부를 하다가 학비를 대지 못해 1년 남짓하여 포기하고 다시 부모들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간 그였다. 그후 가정교사와 교원을 하면서 짬짬이 음악공부를 하였으나 그것마저도 징병에 끌려가는 바람에 그만두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라의 해방(1945. 8. 15.)은 그로 하여금 창작의 전성기를 펼쳐놓게 하였다. 평양에 중앙교향악단이 조직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조국으로 달려나왔다.

이역땅에서 나라없는 설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그에게 있어서 해방된 조국땅에 진정한 인민정권이 세워지고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의 환희와 기쁨에 넘쳐있는 모습은 그로 하여금 창작적나래를 활짝 펴게 하였다. 이렇게 창작된 노래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이다. 노래는 창작되자마자 전국에 퍼져나가 인민들을 건국위업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시기에는 손에 총을 잡고 침략자들과 싸우면서 인민군용사들을 승리에로 고무하는 《해안포병의 노래》, 《승리하고 돌아오라》와 같은 명곡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박한규생일 100돐을 맞으며 기념음악회가 진행되였다.
주체108(2019)년 촬영

그의 창작활동에서 절정을 이룬것은 송가작품인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이다. 이 노래에는 그의 사상정신세계와 실력, 풍부한 생활체험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여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이 꽉 차있었다. 그것이 박한규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와 같은 전인민적인 송가를 작곡할수 있게 한 비결이였으며 그를 인민이 아는 작곡가로 되게 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가 작곡한 노래들은 오늘도 시대의 명곡으로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속에서 애창되고있다.

주체108(2019)년 3월 작곡가 박한규생일 100돐기념음악회가 열리였다.

그의 이름은 《조선대백과사전》과 《조선음악년감》을 비롯한 여러 도서들에 올라있다.

그는 인민이 기억하는 작곡가로 애국렬사릉에 영생의 모습으로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휴식일의 하루를 보내고있는 박한규의 자녀들 주체108(2019)년 촬영



람홍색공화국기아래 내가 삽니다



손녀와 함께 있는 정훈상　　주체108(2019)년 촬영

조국인민 누구나 바라만 보아도 절로 가슴 뭉클해지고 숭엄해지게 하는 람홍색공화국기.

그 국기아래 사는 수천만의 사람들가운데는 평양시 평천구역 해운2동 96인민반에서 사는 정훈상선생도 있다.

여든을 가까이하는 나이에 이른 그는 50여년전 공화국기발과 맺은 남다른 인연에 대하여 후대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며 옥중에서 썼던 수기를 때없이 펼쳐보군 한다.

주체58(1969)년 8월 정훈상은 일본 효고현 고베구치소에서 감옥생활을 하였다.

리유는 출입국관리령위반죄라는 터무니없는 죄였다.

남조선 전라남도 보성군이 고향인 정훈상선생의 어린시절은 불우하였다. 애국에 뜻을 둔 그의 부모들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생활을 하다가 조국해방전쟁시기 북행길을 택하였다. 그때 당시 7살이였던 그는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한다던 아버지의 말을 새기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나날 빨갱이자식으로 취급받으며 고통에 고통만을 당하여 어린 그의 마음은 서러움에 그늘져있었다.

그는 늘 고향마을뒤산에 올라 눈물속에 부모님들이 계시는 북녘하늘을 바라보군 하였다.

주체49(1960)년 4.19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당시 광주상업고등학교 학생이였던 그는 이 봉기에 참가하여 총에 맞고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면서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부모들이 있는 곳으로만 쏠리였다. 특히 조국에서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의 리익이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되고있다는 소식이 꿈만 같이 전해졌다.

주체58(1969)년 8월 그는 공화국으로 갈 결심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화물선에 올랐다.

그러나 일본땅에 내리자마자 그는 출입국관리령위반죄라는 죄명에 걸려 일본경찰에 체포당하여 고베구치소의 철창속에 갇히우게 되였다. 국제적십자사에 알려 부모님들이 계시는 조국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의 호소를 일본반동들은 외면하였다.

친척 하나도 없는 일본땅에서 더는 조국으로 갈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절망속에 날과 달을 보내던 그에게 낯모를 사람들이 면회를 왔다. 알고보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처사에 항거하는 정훈상과 그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는 재일동포들
주체58(1969)년 촬영

니 그들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일본의 민주변호사들이였다.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모셔진 로작들과 공화국기발을 안겨주면서 잘 싸우라고, 꼭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갈수 있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때 그는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는 감방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공화국기를 소중히 품고 그이의 로작을 학습하며 조국으로 갈 결심을 더욱 굳히였다.

구치소밖에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투쟁이 매일같이 벌어졌다. 일본법정사상 류례없는 287명의 변호인단과 정훈상청년을 지키는 회가 조직되였으며 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각계층 사람들도 그를 지지하여 10만명 서명운동을 벌리였다.

그에 대한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이딸리아의 작가가 쓴 소설 《엄마찾아 3만리》를 인용하면서 그때 소설의 주인공인 마르꼬는 이딸리아에서부터 아르헨띠나까지 엄마를 찾으러 가며 갖은 고생을 다하였지만 기어이 만났다, 그러나 그것은 소설이다, 지금 우리앞에 서있는 저 청년, 부모를 찾아가는 저 청년은 현실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강제송환하는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경히 토로하였다.

온 일본땅은 정훈상사건으로 죽가마끓듯 하였다.

공화국에서는 평범한 동포청년의 인권을 옹호하여 외무성성명을 비롯하여 각계층 단체들의 성명이 련이어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청년이 공화국으로 오려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억류되여 옥중고초를 겪고있다는것을 보고받으시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본반동들이 그를 1년 넘어서까지 억류하여 온갖 박해를 가하고 있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적대행위라고, 그를 꼭 데려와야 한다고 하시며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정훈상은 14차례의 공판에서 이기고 주체59(1970)년 12월 29일 드디여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극적인 인생전환을 하게 되였다.

그는 비행기로 평양에 와 내릴 때 자기 삶의 한부분과도 같은 공화국기발을 열정적으로 흔들고 또 흔들었다.

전쟁시기 헤여졌던 부모들과 정훈상의 동생들은 그를 부둥켜안고 놓을줄을 몰랐다.

그때 그는 조국의 품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다는 몰랐다.

나라에서는 조국에서 처음으로 맞게 되는 새해에 그에게 선물도 보내주었고 돈없어 대학에도 못갔던 그를 인민경제대학에서 공부하도록 조치도 취해주었다. 대학졸업후 인민정권기관에서 일하게 된 그는 고마운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두 자식과 사위, 며느리도 다 대학을 졸업하였다.

공화국기발을 가보처럼 간수하고 애국을 가풍으로 내세우고있는 정훈상선생은 손자, 손녀를 거느린 할아버지가 되였지만 젊은 시절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 감격을 늘 추억하며 살고있다.

그는 말하였다.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 공화국기발, 저 기발에 우리모두의 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람홍색공화국기아래 내가 삽니다. 우리모두가 참된 삶을 누립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식

전통적인 훈증료법

훈증료법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건강증진과 질병치료에 적극 적용하여온 전통적인 고려의학적치료방법의 하나이다.

이 료법은 고려약을 끓이거나 태울 때 생기는 증기나 연기를 몸의 일정한 부위에 쏘이거나 그 달임물로 씻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옛 문헌들인 《동의보감》, 《의방류취》, 《향약집성방》 등에 기록되여있다.

훈증치료는 방법에 따라 열기훈법과 연훈법, 훈세법으로 구분한다.

열기훈법은 아구리가 좁은 그릇에 고려약을 넣고 끓일 때 나오는 증기를 질병부위에 직접 쏘이는 치료방법이며 연훈법은 약초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쏘이거나 들이쉬는 치료법이다. 훈세법은 열기훈법으로 치료한 다음 달임약으로 병조를 씻거나 천을 약물에 적시고 덥혀 찜질하는것을 말한다.

훈증료법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고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온열자극치료와 그로 인한 땀내기치료효과, 약연기에 의한 약리적효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우수한 치료법으로서 오늘도 그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다.

* * *

안신차

안신차는 조선의 명산들에서 자라는 자귀나무잎과 속껍질을 주원료로 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법제하여 차형태로 만든 천연건강식품이다.

차는 스트레스와 육체적과로후 피로를 빨리 해소시켜 몸의 정상적인 균형을 보장해주고 당뇨병과 고혈압치료에도 효과가 있으며 중금속중독도 해소시킨다.

다른 차들과 달리 안신차는 건강상태를 감별할수있게 하는 신기한 성질도 가지고있다.

마시는 사람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맛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구수한 맛을 느끼지만 병이 있는 사람들은 쓰거나 시큼한 맛, 어지러움, 헛배부르기 등의 증상을 느낀다고 한다.

인기제품인 안신차는 단군천연건강제품개발소에서 생산되고있다.



어머니란 부름을 되새길수록

평양의학대학 면역연구소 실장 부교수 김명수는 요즘 조선중앙TV로 시청률이 높은 노래 《우리 어머니》가 방영될 때면 즐겨 따라부르고있다.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데 있던가
백두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주며
천만자식 영웅답게 키운
어머니
모든 소원 꽃펴주는
따뜻한 그 품
아 그 사랑 우린 못 잊어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

《세상에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래에 있듯이 인민은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아 키우는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 노래는 마치 나의 생활체험을 그대로 가사와 곡에 담은것 같습니다.》라고 서두를 뗀 김명수의 눈에는 회억의 빛이 어리였다.

지금으로부터 47년전 일본에서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 누이의 바래움을 받으며 형과 함께 조국의 품에 안긴 그였다.

부모의 정은 멀리에 있었지만 그는 언제 한번 외로움을 몰랐다.

대학기숙사생활을 하는 그들형제가 쓸쓸해할세라 조국에서는 방학때면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명산들에 대한 답사와 여러 지역에 대한 견학을 비롯하여 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해주었다. 그리고 교복과 학용품도 정상적으로 공급해주었다.

그속에서 그들형제는 대학과정안을 최우등의 성적으로 마치고 형은 축구감독으로, 김명수는 평양의학대학 유전의학연구소 연구사로 되였다.

연구사로 일하면서 명수는 면역학을 파고들었다.

감염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혈청학을 기본으로 하여 성립된 면역학은 20세기 후반기에 면역생물학, 세포면역학으로 발전하여 의학뿐아니라 생물학의 기초를 이루는 학문으로 되였다.

면역의 개념도 크게 달라졌으며 현대면역학은 생명현상의 하나로서의 면역현상을 분자수준 혹은 유전자수준에서 해석하게 되였다.

면역학의 발전으로 그 연구방법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명수실장은 세계적추세를 연구하면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기의 연구항목으로 정하였다.

그 나날 사람의 혈청에서 성장호르몬을 측정해서 키크기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성과도 내놓았다.

뿐만아니라 그는 심근경색진단시약도 연구완성하였다.

심근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병인것으로 하여 병원들에서 자칫 진단을 잘못 내리면 그것



김명수





연구사업에 전념하는 김명수



가족과 함께

은 사망으로 이어질수 있었다.

그는 탐구를 거듭하여 사람의 혈청안에 생물표식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심근경색을 정확히 진단할수 있게 하는 시약을 만들었다. 충분한 림상검토를 거친 그 시약은 김만유병원을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여러 병원들에 널리 도입되였다.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안고 명수실장은 면역과 관련한 《세포공학항체와 유전자공학항체》, 《면역학연구법》, 《사람의 생명과학》을 비롯한 참고서들을 집필하여 의학과학발전과 후대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모두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였다. 맏딸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고 둘째딸은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부원으로 일하고있다.

주체106(2017)년 고령의 나이에 아들의 집을 찾은 명수실장의 어머니는 벽에 걸려있는 4개의 대학졸업증과 덩실한 큰 집을 보면서 《네 누나는 부모와 같이 살았어도 성공 못했는데 너희들은 조국의 품에 안겨 뜻을 이루었구나.》라며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명수실장은 그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슬하에 천만자식을 거느린 조선로동당의 품이 있어 조국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고향소식

산골군의 오늘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은 조국의 중서부에 위치하고있는 평안남도 회창군이라고 하면 그 지명이 별로 귀에 익지 않을것이다.

얼마전 우리는 새세대 동포들에게 회창군을 소개하려고 그곳을 찾았다.

회창군은 지리적으로 볼 때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성지형을 이루고있다. 이 고장은 해발높이가 200~800m인 산지가 군령역의 90%를 넘을뿐아니라 산비탈경사가 매우 심한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하천만도 10여개나 된다. 이런 자연지리적조건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불리하다.

하지만 이러한 산골군이 오늘은 여러면에 걸쳐 전국의 앞장에 서있다.

산과 강을 다스려

회창군에서 제일 큰 힘을 넣은것은 국토관리사업이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전에 군안의 모든 산림자원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경제적수익성이 좋은 나무들과 밤나무, 도토리나무, 찔광이나무, 다래나무, 머루나무, 약초들을 군중적운동으로 심어 산림자원을 늘이였다.

산림조성과 함께 산림보호에도 각별한 힘을 넣어 수백개소에 감시초소를 전개하고 위험개소들에 물주머니도 설치하여 산불, 사태 등을 대책해나갔다.

군에서는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하여놓고 나무모들을 충실히 자래웠으며 효능높은 성장촉진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군에서 건설한 양묘장

사름률을 90%이상 높이였다.

지난 10여년간에만도 군에서 새로 조성한 산림면적은 1만 6 200여정보에 달한다. 이렇게 조성한 산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수천㎥의 목재와 적지 않은 산과일, 산열매, 약초들은 군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군주민들은 자기 고향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켰을뿐아니라 강하천도 잘 다스렸다.

이리저리 구부러져 멋없이 흐르던 강줄기들을 곧추 펴고 강바닥도 깊이 팠으며 강폭이 좁은 곳은 넓혀주어 큰물이 나도 제때에 빠질수 있게 대책하였다. 산촌의 유정함을 더해주며 흐르던 크고작은 강하천들에 정산1호, 3호발전소와 량정청년발전소가 건설되여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과 문화후생시설, 주민세대들에 필요한 전기가 충분히 생산되고있다.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강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 다리공사, 산사태가 발생할수 있는 위험구간들에 대한 옹벽쌓기 등을 질적으로 하여 국토의 면모를 전반적으로 일신시키였다.

자기 고장의 자원으로

일명 지방공업촌으로 불리우는 신작로동자구의 골짜기에는 군안의 여러 지방공업공장들이 들어앉아있다.

기초식품공장, 식료공장, 비누공장, 종이공장, 가구공장, 직물공장, 수지일용품공장…

기초식품공장에서는 맛좋은 된장, 간장, 맛내기, 기름, 식초와 함께 산에서 가꾼 여러가지 산나물로 만든 가공품들도 생산되고있다. 특히 국내우수제품으로 등록되였고 여러차례의 기초식품전시회에서 1등으로 평가된 회창간장은 그 맛이 특별히 좋아 린접군은 물론 수도에서도 수요가 높다고 한다.

식료공장에서 밤, 도토리, 머루, 다래와 같은 산열매로 만든 당과류와 술, 각종 음료는 물론 매일아침 군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에 공급되는 우유도 회창사람들의 자랑거리로 되고있다.

수유나무열매를 비롯한 지방원료로 만든 비누공장의 《성흥》비누와 함께 가구, 천, 종이, 그릇 등 인민소비품들은 질이 좋아 군주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교육과 보건, 상업봉사, 지방건설과 같은 여러 부문의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특히 군에서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와 병원, 상점, 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군의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양어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인철은 《올해중으로 읍지구에 200여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고 농촌리들에도 문화주택들이 건설되게 된다. 그리고 가까운 년간에 수천정보의 잣나무림과 수백정보의 수유나무림, 뽕나무림 등을 더 조성하며 해바라기, 피마주를 비롯한 기름작물을 대대적으로 심어 지방공업공장들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할 목표를 세우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지방예산제모범군, 모범지방공업군, 모범교육군과 같은 자랑이 커가니 회창사람들은 누구나 도시사람 부럽지 않은 문명을 누려가고있다.

누구나 찾아오는 고장

회창에는 각지의 사람들이 류달리 많이도 찾아오고있다.

해방전에는 사람 못살 고장이라고 태를 묻은 이곳을 울며 떠나갔던 회창사람들과 그 후대들이 오늘은 이곳에 다시 보금자리를 펴고 자기 고향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켜가고있다. 도시와 농촌, 어촌 등지에서 시집장가오는 사람들도 날로 늘어나고있다.

그들뿐이 아니다. 회창사람들의 경험을 배우려 다른 지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산천의 아름다움에 앞서 제 손으로 행복을 가꾸어가는 회창사람들의 향토애의 마음을 먼저 보고있다.

회창사람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향토애는 절로 생겨난것이 아니였다. 그들은 산과 강을 잘 리용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누구나 잘 알고 그 관철을 위해 늘 머리를 쓰며 마음과 힘을 합쳐 부지런히 일하였다. 그 과정에 남의 집에 있는 금덩어리보다 자기 집에 있는 쇠덩어리가 낫다는 말의 참뜻도 직접 느끼였다.

회창군은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시기 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조선인민과 함께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들고 목숨을 기꺼이 바쳐 싸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의 영웅적위훈이 아로새겨져있고 오늘도 렬사들의 넋이 고이 잠들어있는 뜻깊은 고장이기도 하다. 군안의 주민들은 물론 다른 지방사람들도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아오고있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적도 깃들어있다.

군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이곳에 자주 찾아와 지원군렬사들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그들의 위훈을 추억하며 릉을 관리하는데 자기들의 진정을 바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회창군문화회관



성흥각



회창식료품상점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았다

3년전 5월 15일 로씨야신문《쁘라우다》에는《제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였다. 아래에 그 글을 싣는다.

* *

로씨야련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을 공식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은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책임일군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량국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평양은 고층, 초고층건물들로 숲을 이루고있다.

우리 대표단은 평양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입된 표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다.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평양은 어디 가보나 거리들이 시원하게 펼쳐져있고 대단히 깨끗하다.

기업소들의 구내에는 운동장들과 수영장을 비롯한 휴식장소들이 있다.

거리들을 지나며 우리는 공원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사람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것을 보았다.

수십년간 제재를 받고있는 조선으로는 최신기술설비들의 반입이 금지되여있으므로 조선사람들은 생산공정에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고있다.

나는 화장품에 대한 조예는 없지만 한가지 명백한것은 평범하면서도 화학성분이 극히 적은 조선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이 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속에서 매우 높다는것이다. 장미와 알로에를 비롯한 여러가지 식물들 특히 인삼으로 만든 화장품이 특별한 인기를 끌고있다.

모든 생산현장들이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꾸려져있다. 어느 한 신발공장에서는 축구화, 롱구화, 등산용신발을 비롯한 각종 운동신발을 전문으로 생산하고있고 비규격문수의 신발들에 대한 주문생산도 진행하고있다. 현대적인 레이자자동재단설비가 갖추어져있는 이 공장에서는 특수한 질검사기로 신발들을 구기거나 압력을 가하면서 외부적영향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따로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종업원들이 자기 희망에 따라 여러 대학의 원격교육을 받고있다. 생산건물들의 지붕에 설치한 태양빛전지판들로 필요한 전력을 보충하고있다.

우리가 찾은 거의 모든 기업소의 지배인들은 평범한 로동자로부터 큰 기업체의 관리일군으로 성장한 사람들로서 모든 생산공정을 환히 꿰들고있다. 다시말하여 책상물림의 관리인들이 아니라는것이다.

또 한가지 흥미있는것은 조선에도 우리 나라에서처럼 쏘련시기의 토요로동과 같은 금요로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로동자들이 아니라 사무원들이 참가한다는 점이다.

《수지》도마도가 아니다

농업부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평양시에 남새를 보장하는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았다.

농장에서는 수십㏊의 면적을 차지한 600여개의 온실들에서 과학기술적으로 남새를 생산하고있었다.

품질검사실도 있었다. 이곳 일군들이 우리에게 오이와 강냉이, 고구마를 맛보라고 주었는데 맛이 정말 괜찮았다. 우리 상점들에서 판매하는《수지》남새들은 거기에 대비도 안된다.

하나의 작은 도시와도 같은 농장마을에서는 아담하고 산뜻한 주택들과 유치원, 학교, 문화회관, 목욕탕, 미용원, 아동공원, 운동장, 도서관 등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총체적으로 볼 때 훌륭한 인상을 주었다.

조선에는 노는 땅이 없었다. 자그마한 빈땅도 갈아 씨를 뿌린다.

조선사람들의 구호는《자력갱생》이다.

미래를 생각하며

조선에서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한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다.

젊은 가정부인인 통역원의 말에 의하면 조선에는 동마다 탁아소가 있다고 한다. 유치원들도 많아 부모들이 걱정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어느 한 유치원에 들려 귀여운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체육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평양교원대학에 꾸려진 교육설비들은 정말 대단하였다. 아마 서방나라들도 부러워할것이라고 본다. 이 대학에서는 콤퓨터를 통하여 대화를 나눌수 있는 프로그람을 리용하여 미래의 교원들이 실습을 진행하고있었다. 그들은 가상적인 학생들을 대상하여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에 대처할수 있게 자신들을 준비하고있었다. 대형동영상화면에 실지 학생들과 꼭같은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교원의 물음에 대답도 하고 문제도 풀다가 교원이 수업을 끝내면 웃고 떠들었다. 프로그람은 여러 나라 말로 동작할수 있어 우리도《학생》들과 로어로 담화를 해보았다.

우리가 더욱 놀란 곳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였다. 연건평이 10만 5 000여㎡인 웅장한 건물의 내부는 정말 황홀하였다. 그 앞에는 공원과 운동장이 있었는데 이 모든것이 학생들의 과외교육을 위한것이였다. 놀랍다는 말밖에 더 나오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규모의 건물에서 국가공무원들이 일하지만 조선에서는 하루동안 5천여명의 어린이들이 무상으로 과학, 예술, 체육을 배우고있다. 우리는 많은 소조들과 분과들에서 악기연주와 노래, 무용, 그림그리기, 수예, 여러가지 체육을 하고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감동깊게 돌아보았다.

민족의 건강

우리는 현대적인 류경안과종합병원에도 들려보았다.

여기서는 시력검사와 안경봉사, 백내장과 록내장수술치료, 수정체교체, 레이자시력교정 등을 진행하고있다.

현대적인 이 안과종합병원에서는 전국에서 온 환자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 접수실앞에서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다. 이런 줄은 거의 모든 치료실들에서 볼수 있었으나 그리 길지는 않았다. 여러명의 환자들이 들게 되여있는 입원실들에는 TV와 랭동기, 샤와실이 있었고 어린이환자들을 위한 놀이방들도 있었다.

평양에는 간이매점들과 식당, 동물원, 곱등어관, 물놀이장, 자연박물관, 극장, 경기장, 로라스케트장, 유희장 등 모든 휴식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있었다.

체류기일때문에 다 들려보지 못한것이 아쉽다.

근면한 조선인민은 자기의 력사도 소중히 여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조선해방에 기여한 이전 쏘련의 붉은군대병사들을 위해 세운 해방탑을 정성껏 관리하는 이 나라 인민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보여주기 위한것인가?

조선의 모든것이 다 훌륭하다고 말하고싶지는 않다.

오랜 세월 제재를 받고있는데다가 원유도 가스도 나오지 않는 이 나라에는 부족한것이 많다. 특히 원유가공부산물인 피치가 없다나니 도로건설에서 애로를 겪고있다고 본다.

물론 사람들마다 손님들에게 자기에게서 제일 좋은것을 보여주려고 하는것은 례상사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훌륭한 모든것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모든것이 실지 존재하고있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도 한번이라도 보여주기식으로 공장들에서 질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살림집을 지어 집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생소년궁전들에서도 아이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고 현대적인 의료쎈터들에서 성의껏 치료를 해주었으면 한다. 물론 조선에서처럼 모두 무상으로 말이다.

인민들이 좋아하는데야 보여주기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단 말인가?

왈레리 라슈낀

죄의식이 전혀 없는 확신범

죄의식은 인간이 저지른 죄과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것이다. 인간이 죄의식마저 없다면 사회에는 무질서가 만연되고 도덕적으로 파멸되고만다. 바로 일본이 그러한 나라이다. 일본은 20세기 초엽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를 저질렀는바 그것이 바로 일본군성노예범죄이다.

1.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일본의 속심

일제는 조선녀성들을 1920년대부터 저들의 성노예로 끌어가기 시작하였다. 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한 일본제국주의는 1920년대에 대륙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쳤다. 일제는 1918년 쏘베트로씨야의 원동에 대한 침략을 감행할 때 일본군의 란잡한 강간행위로 성병이 만연되여 전투력이 약화되였다. 이런 전례를 없애려면 《위안부》가 필요하였다. 하여 일제는 1920년대에 저들의 군사적강점지역인 조선에서 극비밀리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제도를 실시하였던것이다. 《위안소》는 일본군이 도사린 지역들에 설치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10대의 미성년소녀로부터 20살미만의 처녀들, 30살미만의 젊은 녀성들과 유부녀들까지 무력과 국가권력으로 마구 련행, 랍치하여 《위안소》에 가두어놓고 하루에 보통 20~30명 지어 40여명의 일본군인들에게 《성봉사》할것을 강요하였다.

일본군은 저들의 동물적야욕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노예들을 구두발로 차고 때리고 칼로 베고 이발로 물어뜯어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었는가 하면 녀성들의 팔다리를 자르고 지어 임신한 녀성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내여 밟아죽이는 등 야수와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성노예들은 성고역에 시달리고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죽었으며 전선지대들에 끌려다니다가 무리로 살륙되거나 일제의 총알받이로 무참히 희생되였다. 그들은 수치감과 굴욕감을 참을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도주하다가는 잡혀 가혹한 형벌을 받아 학살되거나 불구로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 대부분이 고향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낯설은 이국땅에 묻히였다.

하다면 일본이 왜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갔는가 하는것이다.

1990년대초 일본잡지 《세까이》는 일본녀성사 연구사 스즈끼 유꼬의 글을 실었다. 글에는 《일본처녀들을 전장에 내보내지 않은것은 어째서인가. 그처럼 횡포하기 그지없는 일본군이 일본처녀들의 인권을 고려했기때문인가. 그렇지 않은것이다. 그들 일본통치배들은 일본처녀들의 생식기관이 못쓰게 되는것을 두려워했기때문이다. <위안부>를 시키면 녀성들의 <생식능력>이 쇠퇴해진다는것을 그들은 빈틈없이 계산에 넣고있었던것이다. 이런 계산에 기초하여 생각해낸것이 식민지에서 녀성들을 끌어오자는것이였다. 이렇게 하면 당면하여 성병을 막을수 있을뿐아니라 식민지민중에게서 민족성을 앗아내기도 매우 좋다는 품을 들인 음모적타산이 작용하였을것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차별이 있고 식민지지배의 본질이 있었다.》고 씌여져있다.

1910년 5월부터 3대 《조선통감》을 하였으며 직접 군사를 경성(서울)에 끌어들이고 비법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 마사다께의 발언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람은 우리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이런 일본이였기에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간것이다.

일본군에 예속된 성노예들은 바로 고대로마나 그리스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노예적상태에 있었으며 그보다 더하다고도 할수 있는 존재였다. 다만 그들과 차이가 있다면 성《봉사》만이였다는데 있다.

말하자면 성적행위를 강제로 당하는 노예였다는데 일본군성노예의 본질과 성격이 있다.

그들은 일본의 정치가들이 흔히 말하는 전선의 장병들을 정신심리적으로 위안하는 녀성들이 아니였다.

일본군성노예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아도 그들은 녀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뿐아니라 초보적인 인권과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한 성노예들이였다.

일제의 성노예범죄야말로 조선녀성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죽음을 강요한 만고죄악이다.

이로써 일본은 자국이 패륜의 나라, 야만의 나라임을 세인앞에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일본의 과거 성노예범죄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밑에 군부가 직접 조직하고 감행한 특대형반인륜범죄로서 일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특대형반인륜범죄의 책임을 지고 한시바삐 과거청산에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성노예소녀상과 추모비들이 련이어 설립되는 등 일본의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수욕을 채우기 위하여 몰려든 일제야수들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조선녀성들

명승 - 박연폭포

개성시 박연리에는 우리 나라 3대폭포의 하나인 박연폭포가 있다.

높이가 37m이고 너비가 1. 5m인 폭포는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물소리 또한 요란한것이 특징이다. 뿐만아니라 폭포가 일으키는 뽀얀 안개는 주변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여준다.

폭포우에는 너럭바위가 바가지모양으로 패여 이루어진 박연이라 불리우는 기묘한 못이 있고 그가운데 여러 사람이 앉을만 한 크기의 선바위가 있다.

구슬같은 맑은 물이 바로 이 선바위에 부딪쳐 돌면서 박연에 담기였다가 바위벽으로 떨어진다. 폭포밑에는 폭포수에 의하여 패인 고모담이라는 못이 있다. 고모담기슭에는 물에 잠겨 웃부분만 나타낸 룡바위라는 둥근바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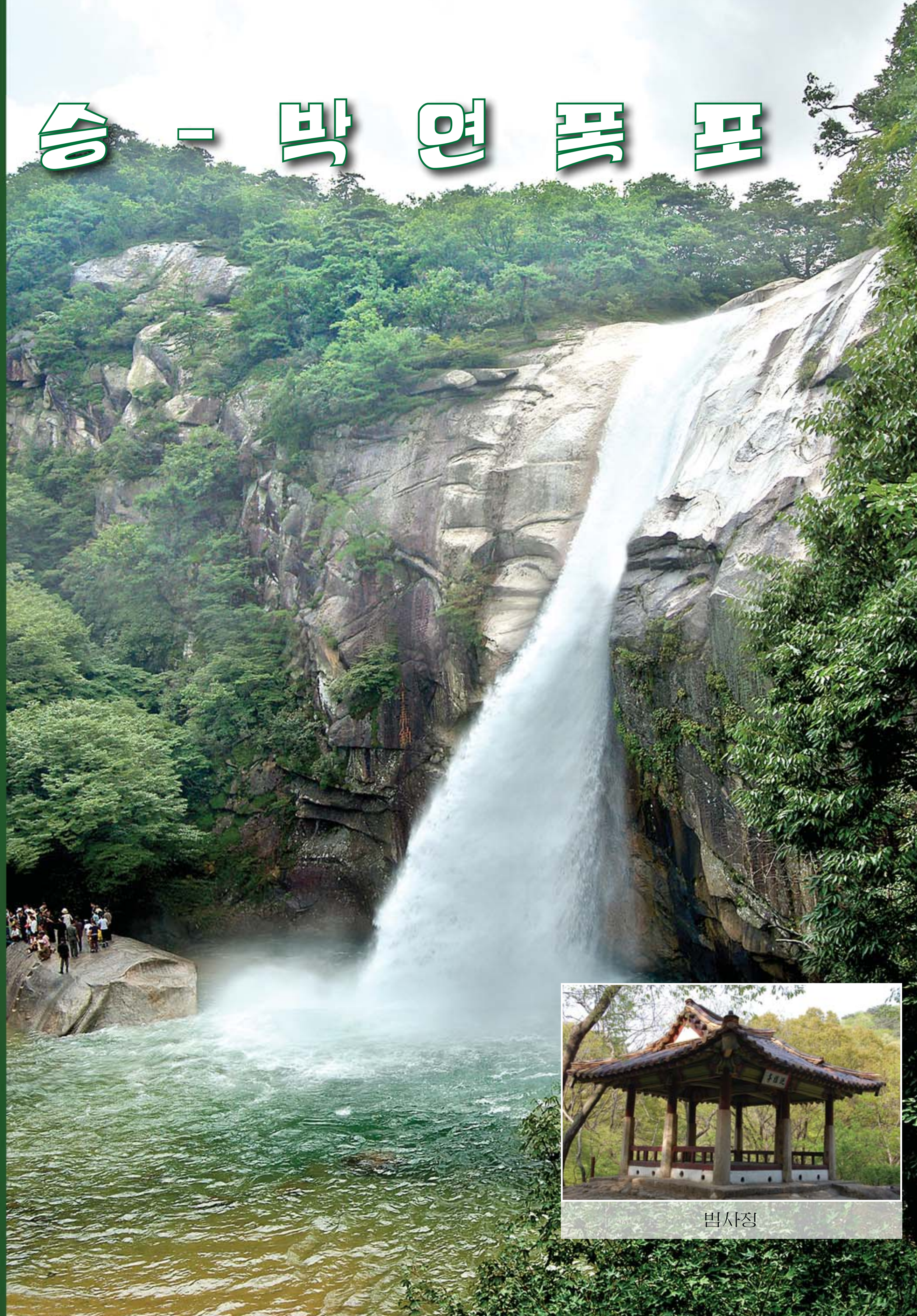
고모담의 서쪽언덕에는 범사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박연폭포는 남쪽의 깎아지른듯 한 벼랑과 사방에 병풍처럼 둘러선 층암절벽에 안기여있어 볼수록 경탄을 자아낸다.

봄철에는 진달래, 철쭉, 벗, 살구, 돌배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짙은 록음속에 목란이 향기를 풍기며 가을이면 온 산천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철따라 이채로운 경치를 자랑하는 박연폭포는 조국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박창복

주체108(2019)년 촬영



범사정

9월의 절기와 민속

9월의 절기에는 백로와 추분이 있다.

백로란 흰 이슬이 내리고 가을기운이 스며드는 때라는 뜻이고 추분은 여름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가을이 된다는 뜻이다.

올해의 백로는 9월 7일이며 추분은 9월 23일이다.

보통 백로를 전후로 한 시기에는 산과 들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머루, 다래, 돌배를 비롯한 산열매들이 익기 시작한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이 시기에 조를 비롯한 농작물들에 대한 가을과 밀보리씨뿌리기를 하였으며 일부 지방들에서는 목화따기를 하였다. 산간지대에서는 약초캐기와 산열매따기를 하였다.

한편 추분이면 논에서는 벼가을을 하였고 밭에서는 콩을 비롯한 발곡식을 거두어들였으며 밀보리심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가을철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바쁜 시기였으므로 어른들은 될수록 민속놀이를 하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숨박곡질놀이를 즐겨하였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범장군 나간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숨박곡질놀이를 하면서 부른 노래이다.

숨박곡질은 《범》이 된 어린이가 숨은 애들을 찾아내는 놀이로서 주로 달밝은 밤에 많이 하였다. 이 놀이를 평안도에서는 《숨기놀이》, 강원도에서는 《숨박질》, 함경도에서는 《술래잡이》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즐겨 만들어먹은 음식가운데는 국화꽃을 찹쌀가루에 섞어 반죽하여 지진 국화지짐, 국화꽃잎을 띄운 술인 국화주, 신선한 사과나 배, 오미자나 들쭉 같은 열매를 꿀물에 탄 음료인 화채 등이 있다.

국화는 찬서리에도 지지 않고 피여있는 생활력이 강한 꽃이다. 이로부터 선조들은 국화를 조선사람의 고결한 성품이 깃든 꽃으로 여기면서 식생활에도 많이 리용하였다.

본사기자

유모아

장난꾸러기의 대답

한 어린이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 온몸에 진탕이 묻은채 집으로 돌아왔다.

《이 장난꾸러기야! 이 좋은 바지를 입고 넘어지면 바지가 무엇이 되니?》 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꾸지람하였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미끄러져 넘어질 때 미처 바지를 벗을새가 없었거든요.》

*　*　*

민족의 향기

유구한 력사를 가진 두부앗기풍습

흔히 사람들은 콩을 자주 먹어야 장수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콩에는 식물성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콩단백질의 아미노산조성은 고기단백질에 못지 않습니다.

콩 100g당 열량은 1 675~1 884J인데 이것은 소고기의 5배, 돼지고기의 4배, 소젖의 3배입니다.

이렇듯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약 80%를 회수하여 얻어진 단백질덩어리가 바로 두부입니다.

그럼 이번호에는 콩의 원산지인 우리 조국에서 오랜 력사를 가진 민족음식 두부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두부는 물에 불군 콩을 갈아 걸러낸 물을 끓여 서슬을 치고 엉긴것을 눌러짜서 만든것입니다.

옛 기록에는 두부가 모양이 거품처럼 생겼다 하여 《포》(거품)라고 하였으며 맛이 좋으면서도 부드럽고 연하여 특히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인기를 끌어 두부료리가 반찬중에서 가장 좋은것이라고 씌여져있습니다.

조선속담에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콩 가지고 두부 만든대도 곧이 안 듣는다》, 《콩밭에 가 두부 찾는다》 등 두부와 관련한 속담이 적지 않은데 이것만 보아도 우리 선조들이 식생활에 두부를 리용한 력사가 오래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콩은 원시시대부터 재배되였으므로 두부의 력사도 매우 오랩니다.

우리 선조들은 콩을 물에 불구었다가 갈아 그대로 가마에 넣고 국처럼 끓여먹기도 하고 분쇄한 콩을 걸러서 소젖처럼 끓여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어느것이나 맛이 슴슴하므로 간(소금)을 두고 끓이였습니다. 그런데 콩을 갈아 국거리처럼 그대로 끓이면서 간을 친 음식(비지)은 형태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콩을 갈아 걸러 얻은 물을 끓여 간을 친 음식에서는 거품처럼 서로 엉기여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먹어보니 만문하고 맛도 좋았으며 소화가 잘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두부였습니다.

그후 사람들은 엉기여지는 순두부의 성질을 알고 주머니같은데 넣어 눌러짜서 모두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만드는데서는 소금보다 소금에서 녹아나오는 짜고 쓴 서슬을 쓰는것이 더 좋으며 그것이 없는 경우 김치국물도 쓸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고려시기 두부는 대중음식, 의례용음식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두부는 그 제조법이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옛 문헌인 《시의전서》에는 이렇게 소개되여있습니다.

《물에 불군 콩을 갈아 베자루에 넣고 짠 다음 그 물을 가마에 넣어 끓이면서 주걱으로 젓는다. 다 끓은 후 여기에 서슬을 치면 두부가 된다.》

두부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그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새끼로 묶어 들고다녀도 이지러지지 않는다는 단단한 모두부, 처녀의 곱고 섬세한 손이 아니고서는 흐트러진다는 연두부, 명주로 굳힌 비단두부, 베에 싸서 굳힌 베두부, 미꾸라지를 두부속에 넣은 약두부…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두부는 오늘날 민족적향취를 진하게 풍기며 조국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에는 가는 곳마다 두부공장들이 세워져 맛좋은 두부들이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고있습니다.

평양시 중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외성두부공장에서는 매일 수백kg의 콩으로 순두부, 모두부, 연두부, 건두부, 압착두부와 같은 여러가지 두부가 생산되고있습니다.

책임자 김혜숙의 말에 의하면 두부의 맛을 좋게 하는 비방의 하나는 콩을 잘 선택하는것이라고 합니다.

콩이 햇콩인가 묵은 콩인가 그리고 산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두부맛이 현저히 달라진다는것입니다.

외성두부공장구내에 세워진 외성두부료리전문식당에서는 근 300가지의 두부료리를 봉사하고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해져오는 과정에 그 맛과 가지수가 날로 늘어나고있는 두부앗기풍습은 몇해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계속 발굴되는 고구려유적과 유물들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리에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리에서 또다시 고구려시기의 무덤과 유물들을 발굴하였다.

지난해 발굴된 벽화무덤은 사신도주제의 벽화무덤으로서 보존상태가 좋고 지난 시기 고구려벽화무덤들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별자리들과 유물들로 하여 당시 고구려의 천문학수준과 발전된 금속세공술, 고구려사람들의 신앙관계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였다.

고고학연구소에서는 지난해의 성과에 기초하여 이 지역에서 고구려시기의 돌칸흙무덤 9기와 금보요, 금방울, 은팔찌, 은가락지, 관못, 질그릇쪼각들을 비롯한 많은 유물들을 또다시 발굴하였다.





월지리소재지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있는 무덤들은 다듬은 돌로 무덤칸을 만들고 흙을 씌운 외칸돌칸흙무덤들로서 무덤칸들의 크기는 길이 2.3~3.24m, 너비 1.4~2.15m정도이다.

무덤들은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져있다.

안길은 안칸 남쪽벽의 중심에 있는것도 있고 동쪽으로 치우쳐있는것도 있다.

안칸바닥은 진흙다짐을 한 후 숯을 깔고 그우에 회미장을 하였으며 벽은 다듬은 돌로 쌓고 겉면에 1~2㎝정도의 두께로 회를 발라서 만들었다. 안칸바닥에는 거의 전면을 차지하는 한개의 관대가 동서 또는 남북방향으로 놓여있다.

무덤안칸의 천정은 전통적인 고구려시기의 형식인 평행삼각고임식으로 되여있다.

주체38(1949)년에 련이어 발굴된 고국원왕릉을 비롯한 안악무덤떼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 발굴된 고구려무덤들은 안악지방이 고구려 말기의 중요한 행정적중심지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발전된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 된다.

지금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는 발굴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안악군 월지리일대에 대한 조사발굴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있다.





안악군 월지리일대에서 발굴된 고구려시기 무덤과 유물들의 일부

평양시 대성구역 림흥동일대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는 주체80(1991)년부터 주체109(2020)년까지의 기간에 평양시 대성구역 림흥동일대에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을 발굴고증하는 과정에 1세기초부터 고구려가 평양의 림흥동일대를 중요한 지역적거점으로 삼았으며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발전된 문화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학술연구집단은 이 일대에서 고구려시기 건물터의 일부, 2개의 고구려우물(1호, 2호), 벽돌로 축조한 1개의 지하구조물과 많은 기와쪼각, 질그릇쪼각 등을 발굴하였다.

고구려우물유적들은 대성구역 림흥동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2 5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는데 발굴당시 내부시설만 기본적으로 남아있고 우물벽 웃부분의 일부가 파괴되여있었다.

1호우물은 밑바닥을 잔자갈과 모래, 진흙으로 다진 다음 한변의 길이가 98㎝, 높이 56㎝인 정4각형의 나무방틀을 설치하고 그우에 4각추모양으로 다듬은 돌들로 처음에는 8각형, 다음에는 원형의 평면을 이루게 벽체를 쌓아올렸다.

우물안에서는 돌바둑판쪼각, 기와쪼각, 질그릇쪼각, 쇠가마쪼각, 수레굴통쇠쪼각, 옻칠한 나무단지쪼각, 나무쪼각 등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2호우물은 밑바닥을 1호우물과 같이 다진 다음 직경이 100㎝ 되는 정8각형의 나무방틀을 설치하고 그우에 160㎝높이까지는 강자갈로, 나머지는 납작한 돌로 우물벽을 쌓아올렸다.

여기에서도 많은 질그릇쪼각들과 진흙으로 만든 바둑판쪼각, 숫돌, 참빗 등이 나왔다.

림흥동일대에서는 4개의 주추자리돌들이 있는 건물터와 땅을 파고 그안에 강돌을 채워넣은 2개의 배수시설, 동서길이 200㎝, 남북너비 150~160㎝, 높이 90㎝정도의 지하벽돌구조물도 발굴되였는데 그 주변에서 여러 종류의 많은 유물들이 수집되였다.

연구집단은 발굴을 통하여 당시 고구려문화의 발전면모를 새롭게 해명하였다. 1호우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돌바둑판쪼각이 고구려의 바둑판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이른 시기에 속하는 19줄짜리 바둑판이라는것과 한줄에 5개의 화점이 있는 고구려의 바둑판이 고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말까지 이어져왔다는것을 해명하였다.





대성구역 림흥동일대에서 발굴된 고구려우물유적과 유물들의 일부

우물에서 지하수를 다시 려과하였다는것과 세척에 편리한 나무방틀의 사명을 해명함으로써 고구려시기 우물에서의 수질제고기술도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는 림흥동일대에서 조사, 발굴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이 학술적의의가 매우 크다는데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유적의 가치를 평가하고 림흥동고구려우물1호와 2호를 보존유적으로 등록하였다.

본사기자

《글씨를 돈으로 바꿀수 없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명필로 이름있던 양사언(1517년-1584년)이 이웃나라에 갔을 때 있은 일이다.

양사언이 한 부자의 초청을 받아 집에 가니 방 한켠에 커다란 병풍이 세워져있었다.

《저 병풍에는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양사언이 묻자 주인은 일어나 병풍을 펴보이였다. 그런데 새까만 공단을 씌운 병풍에는 그림 한폭, 글 한귀도 없었다.

《아니, 이런 병풍은 어디에 쓰시오?》

양사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인의 대답에 앞서 재차 물었다.

주인은 양사언의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키려는듯 대답없이 병풍을 다 펴놓고서 말하였다.

《이 병풍은 우리 나라에서 글씨로 유명한 사람이 금분으로 글을 써주겠다고 해서 몇달을 두고 정성들여 만든것이요. 그분이 글씨를 써주겠다고 한 날이 오늘이니 좀더 앉아계시다가 그의 필체를 보고 가시는것이 어떠하겠소?》

원래 글씨에 흥미를 가지고있는 양사언인지라 마침 이웃나라의 명필을 보게 된것이 다행한 기회로 여겨져 동의하였다.

얼마 안되여 화구통을 든 명필이 찾아왔다. 그 사람은 손님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곧 글을 쓰려고 준비를 하였다. 그러면서 주인과 글값을 흥정하였다.

그 값은 상당히 높았다. 주인은 좀 난처해하면서도 나라적으로 손꼽히는 명필의 글씨를 받는다는 기쁨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있던 양사언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 명필이라는 사람이 글씨를 팔아먹는다는것은 글씨를 숭상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것으로 생각되기때문이였다.

그 사람이 준비를 다 갖추고 병풍에 글을 쓰기에 앞서 초지에 련습으로 붓놀림하는것을 보니 더우기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다. 그 글체나 솜씨도 신통치 않았다. 글체를 담기에는 병풍이 아까웠고 게다가 값을 받아내는것이 불쾌하였다. 글씨에서는 남한테 양보를 하지 않는 양사언의 자존심이 솟구쳤다.

《가만, 내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팔을 걷고나선 양사언은 누가 허락하건말건 큰 붓을 하나 쥐고 금분을 찍어서는 길게 펴놓은 병풍에다 마당에 물을 뿌리듯이 휘휘 뿌려나갔다.

《아니, 왜 이러시오?》

《이 좋은 병풍을 왜 어지럽히게 하시오?》

주인과 명필이라는 사람이 눈이 휘둥그래가지고 어쩔줄 몰라하였다.

양사언은 주인과 그 사람이 말릴 사이도 없이 열두폭병풍에 금분을 뿌려놓았다. 그는 한걸음 물러나서 마른 담벽이 비풍을 맞은듯 금분에 얼룩진 병풍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아니, 저렇게 아교에 이긴 금분을 뿌려놓은 병풍을 이제 어디에 쓴단 말이오?》

주인은 실망해서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잠간만 기다려보시오.》

양사언은 적당한 붓을 골라들고 병풍우에 휘두르는데 그 솜씨가 사공이 노젓듯, 학이 춤추듯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조화랴.

붓을 쥔 그의 손이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어지럽던 병풍면에 금빛찬란한 글체들이 완연히 나타났다. 조화롭게 어울린 글체들에 의해 이미 어지럽게 뿌려졌던 금박점들이 모두 묻혀버리였다.

주인은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고 병풍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고 명필이라는 사람은 눈이 휘둥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였다.

양사언이 그만 돌아가겠다고 하자 주인은 그런 훌륭한 글씨를 남겨주어 감사하다고 거듭 치하를 하며 그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제가 글씨를 배운것은 팔아먹자고 배운것이 아니니 어찌 돈으로 바꾸겠습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오.》라며 양사언은 흔연히 떠나갔다.

이때부터 양사언은 이웃나라에도 소문이 나게 되였다.

* * *

함경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4)

- 경성향교 -

경성향교는 19세기 후반기의 유적으로서 함경북도 경성군에 있다. 경성향교는 승암산의 동쪽기슭에 자리잡고있다. 남쪽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정북사가 있으며 남동쪽으로 약 1㎞되는 곳에는 옛 읍성이 있다.

경성향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시기 침략자들의 폭격으로 적지 않게 파괴되였으며 지금은 바깥문과 대성전, 서무만이 남아있다.

바깥문은 2층의 겹처마합각집으로서 높은 기둥우에 2익공두공을 얹었다. 아래층에는 널문을 달아 문길로 하고 웃층에는 마루를 깔았으며 기둥밖으로 란간을 둘러 강당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대성전은 화강석을 잘 다듬어쌓은 축대우에 서있는 정면 5간, 측면 3간의 겹처마합각집이다. 직경 60㎝가량의 둥근 주추돌에 올려세운 흘림기둥우에 3익공의 두공을 얹었으며 모루단청을 입혔다. 간수가 많고 합각지붕을 이은것이 여느 향교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다.

서무는 정면 3간, 측면 2간의 겹처마합각집이다.

이 세 건물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본래의 모습대로 복구되여 현재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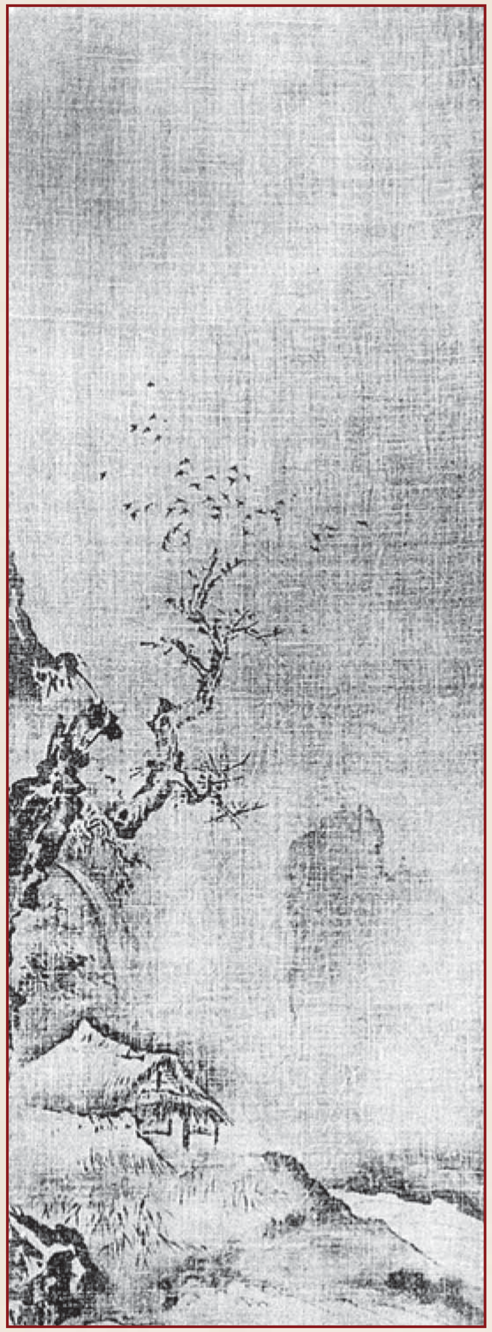
바깥문의 내부



문인화가 강희안과 그의 작품들



《생각에 잠겨》(15.7×23.4㎝)
종이·먹



《산수도》(52×138.5㎝)
모시·먹



《다리우에서》(22.2×21.5㎝) 비단·담채

강희안(1417년-1464년)은 문인량반출신으로서 1441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돈녕부 주부, 집현전 직제학 등의 벼슬을 지냈다.

강희안은 시, 글씨, 그림에 모두 능하여 《삼절》로 불리웠다.

그는 어학자로서 《훈민정음》해석편찬에 참가하였으며 1455년에 활자인 《을해자》의 원본을 써서 서예가로 이름을 날리였다. 또한 할아버지, 아버지의 학풍을 이어 관상용화초와 나무들을 재배하는 기술에 대하여 쓴 《양화소록》을 저술하여 원예발전에도 기여하였다.

그의 활동가운데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화가로서의 창작활동이다.

강희안은 풍경화와 산수화, 인물화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있었다.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선비들의 한가한 생활을 그린 《생각에 잠겨》와 《다리우에서》 등이다.

그는 복잡하지 않은 화면구성과 힘있고 간결한 필치로 인물들의 성격과 심리적움직임 그리고 물체들의 특징을 잘 그렸다.

그는 묘사대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세련된 소묘력, 풍부한 표현력 등 높은 예술적기량을 가지고 조선화표현수법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안견, 리상좌 등과 더불어 15세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알려져있다.

*　*　*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